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10호

Thursday, January 9, 2025 A

워싱턴지역 평균 모기지 4천불 육박

이건희 컬렉션 스미소니언 온다

소득 중 34.4% 모기지 납부
워싱턴메트로지역 주택 소유주의 월평균 모기지 납부액이 4천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체 레드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국 50개 메트로지역 중간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모기지 비율은 41.8%에 달했다.
팬데믹 이후 임금소득 증가에 힘입어 이 비율은 2022년 42.2%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워싱턴메트로지역의 중간주택 가격은 55만7천달러로, 전국 50개 메트로지역 중 11위에 해당한다. 중간가구소득은 13만7천달러로 전국 4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주택구입 여력이 높았다. 워싱턴메트로지역 중간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중간가구소득의 34.4%인 3922달러를 매월 모기지 등 주택 비용으로 지불했다.
이는 50개 메트로 지역 중 35위에 해당한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지역의 중간가구 소득은 10만8627달러, 중간주

택 가격은 38만6226달러, 월평균 모기지 비용은 2690달러, 모기지 비율은 29.7%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중간가구소득은 15만9천달러로 전국 2위였으나 주택가격이 150만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모기지 비율은 76.2%에 달했다.
새너제이, LA, 애너하임 등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지역이 대부분 주택구입 여력이 매우 낮았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의 중간가구 소득은 7만9700달러로 매우 낮았으나 모기지 비율은 25.3%로 가장 낮아 주택구입여력이 높았다. 피츠버그의 모기지 비율은 1700달러를 밑돌았다. 디트로이트의 모기지비용은 대규모 메트로지역 중 가장 낮은 1350달러였다.
한편 리스iting 기관 브라이트 MLS의 최근 주간 주택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메트로지역을 포함한 중부 대서양지역의 잠정주택판매건수는 464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2% 상승하는 등 꾸준한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주택 리스iting도 3267채로 전년동

기 대비 3.8% 증가했다.
워싱턴 지역 중에서는 메릴랜드 남부 지역과 메릴랜드-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 접경 지역만 신규 리스iting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iting 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이트 MLS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올해 주택 판매 계획을 세운 주민의 32.2%가 5년 미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트 MLS의 리사 스튜어터번트 선임연구원은 "주택소유주의 해당 주택 평균 거주 기간이 점점 더 길어져 12년에 이르지만, 최근 주택구입자들의 주택 매매 시기가 빨라지면서 리스iting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펜데믹 직후 2% 안팎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했던 이들이 더 큰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워싱턴메트로지역 중간주택가격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분기 대비 31% 상승해, 넉넉한 에퀴티를 활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내년 11월부터 특별전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이견희 컬렉션' 일부가 내년 말부터 워싱턴DC 전시회에 출품된다.
이건희 컬렉션의 해외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회장부터 3대째 이어진 삼성가의 문화예술 사랑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은 내년 11월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시작으로 2026년 시카고박물관, 영국 런던 대영 박물관에 각3-4개월씩 약 1년간 선보이는 해외순회전을 갖는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처였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첫 해외전시에서는 국보인 정선의 '인왕제색도(사진)'와 보물인 김홍도의 '추성부도' 등 고미술품부터 김환기의 '산울림19-II-73#307'(1973년) 등 근현대미술품까지 20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가의 문화예술 사랑은 이병철 창업회장부터 시작됐다.
선친의 영향을 받은 이견희 선대회장도 국내외 여러 곳에 흩어졌던 한국미

술품을 되찾는 데 나섰다.
그는 1997년 펴낸 에세이집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서 "상당한 양의 빛나는 우리 문화재가 아직 국내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가 재능 있는 예술인재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백남준·이우환·백건우 같은 한국 예술인의 해외활동을 후원한 것은 유명하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04년 리움미술관을 열어 이곳을 한국미술계의 메카로 키워내기도 했다.
그는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오르면 문화인프라도 이에 걸맞게 향상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미, 이창균 기자

연방상원의회 강경파 한반도 핵배치 주장

대중 매파, 강력한 대북제재 지지 하원엔 다리 잃은 참전용사 출신

대북·대중 매파, '힘에 의한 평화' 예찬론자들. 새롭게 진용을 짠 미국 상·하원 외교안보 상임위 수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 3일 개원한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전통에 따라 공화당이 양원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의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상원 상임

위원장들의 경우,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하고 북·중·러 등 적성 국가들에 대해 강경한 성향으로 평가된다. 특히 집 리시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 군사위원장은 공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무게를 실는 인사들이어서 주목된다. 리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북·중·러의 핵 역량 강화 및 실천 핵무기 배치 등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에) 핵무기 재배치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이 논의가 금기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위커 위원장도 같은 달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계획'을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톰 코튼 정보위원장도 강력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지지해 왔다. 다만 "트럼프 2기에서 외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등 대

북 관여 정책에 열린 면도 있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북한통'으로 꼽히는 알렉스 워그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지명자가 코튼 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하원 역시 강경파 일색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에 적극 동조해 온 브라이언 매스트(사진) 외교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 북부 때 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 출신이다. 그는 2022년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때 북한을 "약당 국가"라고 비판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나약하다"고 주장했다. 부친이 주한미군으로 북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에 관심이 많다.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강조해 왔다.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도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우선시한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한국의 특이한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격 취득 후 취업지원 혜택
따라와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산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화이트 코트르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	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백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3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넓고 아름다운, 마루바닥, 넓은 뒷뜰	1 \$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인차 세 타운홈,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면으로 숲	2 \$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	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세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
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우야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	5 \$2,300,000 옥톤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옥톤 HS	6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의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3 \$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로, 넓은 마루바닥	4 \$1,325,000 포토팩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욕	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고급 타운 하우스

K-푸드 수출 130억달러 ... 역대 최대

라면·김치 등 14개 품목 신기록
미국 15억9000만 달러로 1위

지난해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액이 13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K푸드+(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액이 130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농약, 과자류, 음료, 소스류, 커피 조제품, 쌀가공식품, 김치, 펫 푸드, 리큐르, 닭고기, 아이스크림, 유자, 포도 등 14개 품목 수출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식품 수출국은 2023년 199개국에서 지난해 207개국으로 늘었다.

이중 농식품 수출액이 99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0% 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위 사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입구에 버스 1대로 차벽이 만들어진 반면, 6일에는 버스 7대가 네 겹의 방아벽을 형성하고 있다. [뉴시스]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했고, 지난해 정부 목표치인 '100억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수출액 1위 품목인 라면은 12억5000만 달러로 31.1%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라면은 드라마와 영화 등 K-콘텐츠에 자주 노출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챌린지의 영향으로 권역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라면은 미국에서만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3% 늘었다. 중국과 네덜란드로의 수출도 각각 20.9%, 50.1% 증가했다.

냉동 김밥과 즉석밥, 떡볶이와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38.4% 증가한 3억 달러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미국에서 쌀 가공식품 수출액 증가율이 51.0%로 가장 가팔랐다"며 "글루텐프리 건강 식이요법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치 수출액은 5.2% 증가한 1억 6000만 달러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20% 증가)과 네덜란드(29.9% 증가) 등 신규 시장에 비건 김치와 상온 유통 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 매장을 확대한 것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 밖에 과자류 수출액은 17.4% 늘어난 7억7000만 달러고, 음료 수출액은 15.8% 증가한 6억6000만 달러다.

소스류 수출액은 3억9000만 달러로 4.1% 늘었고 커피 조제품 수출액은 3억4000만 달러로 2.7%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액을 시장별로 보면 지난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21.2%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 시장은 지난 2023년만 해도 농식품 수출액 기준 3위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1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우리 농식품의 대미수출이 확대된 것은 과자류와 라면, 냉동 김밥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기를 얻었고 야구와 골프 등 현지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 높아진 덕분이다.

또 코스트코 등 현지 대형 유통매장과 파이프빌로우 같은 소매점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농식품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박람회와 마케팅을 지원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체류자, 경범죄도 즉시 구금

'레이큰 라일리법안' 하원 통과

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불법체류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 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 상원도 이번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강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가 경범죄로

기소되지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 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불법체류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안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불법체류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별 기자

맥도날드, 맥밸류 플랫폼 런칭

맥도날드가 최근 새로운 맥밸류(McValue™) 메뉴를 출시했다.

새로운 맥밸류 플랫폼은 모든 상황에 꼭 맞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팬들은 새로운 할인 혜택인 "한 개 사면 추가 한 개 \$1(Buy One, Add One for \$1)"을 이용해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고, 인기 상품인 \$5 세트 메뉴(\$5 Meal Deal)도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맥밸류 브랜드 앱을 통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1 구매 시 미디움 프라이를 무료로 증정하고, 신규 앱 유저들에게 맥 크리spi와 치킨 샌드위치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맥밸류는 고객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은 제공하는 것이 모토다.

이 플랫폼의 런칭을 기념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한 달 내내 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쏜다.

2025년의 첫 몇 주 동안 16개의 각기 다른 브랜드와 협력해 총 3백만 달러가 넘는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

유튜브 TV 한 달 무료 혜택부터, 아메리칸 에어라인 무료 와이파이 20분 이용권, 터너 골드 프리미엄 액세스

구독권까지, 맥도날드가 마련한 대박 혜택을 통해 팬들은 한정 기간 동안 맥밸류의 정신을 최대한 만끽하고 누릴 수 있다. 평상시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맥밸류 광고가 보이면, 이를 클릭해 무료 크레딧도 받고, 업그레이드도 즐기며, 광고 없이 엔터테인먼트도 즐기면 된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맥도날드 측은 절약이 새해 목표 중 하나였다면, 자주 찾는 플랫폼들에서 맥도날드 쿠폰을 찾아보길 강추한

다고 전했다.

각종 할인가격 정책은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는 사업주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격을 책정하므로, 지역 할인 및 프로모션 혜택은 각기 다르다.

미국내 맥도날드 매장은 약 1만3500개로 이중 95%는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주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mcdonalds.com을 방문하면 된다.

워싱턴 날씨 (°F)

10일(금)	33~26	☁	13일(월)	40~25	☁
11일(토)	37~23	☁	14일(화)	35~15	☁
12일(일)	38~17	☀	15일(수)	28~16	☁

1월 9일(목) 31~2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워싱턴 지역 주민 146명 사면 대상

연방의사당 침입범 사면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거 사면하거나 기소를 취소할 뜻을 나타내자 연방 의사당 경찰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버지니아 80명 메릴랜드 50명, 워싱턴DC 16명 등도 포함돼 있다.

토마스 맵퍼 연방의사당 경찰국장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테러한 범죄자들에게 유죄판결로 얽매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경찰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또한 "이 사안은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사면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이 살해당하거나 폭행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어떤 위로를 해주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사태로 최소 140명의 의사당



경찰관이 폭행당했으며 한 명이 사망, 다른 세 명이 자살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은 트럼프 당선자 지지자 수천여명이 의사당에 난입해 지금까지 1천572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1200명 이상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당선자도 기소됐으나 재판이 계속 연기됐으며 작년 11월 대선 이후 연방법무부가 기소철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일 취임 예정인 트럼프 당선자는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

을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면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일괄 사면이 예상된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의회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를 수사한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터 웰치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는 평화적 집회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맵퍼 경찰국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과 신임 대통령 취임식, 2월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이같은 이슈에 접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퇴직한 아킬리노 고넨 전 경찰관은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약속은 우리 경찰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정의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이미 수감된 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를 방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VA 의회 민주당 다수당 유지

북버지니아 2곳 모두 인도계 당선

7일(화) 버지니아의 세 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북버지니아 두 곳을 승리해 양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판단됐다. 결과적으로 보궐선거 세 곳은 양당이 기존에 유지했던 의석을 모두 지킴으로써 상원 21대19, 하원 51대49 구도를 이어가게 됐다.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의 상원 제32지구와 하원 제26지구 선거에서는 각각 민주당의 케년 스리니바산 하원의원과 JJ 싱 후보가 당선됐다. 스리니바산 의원은 버지니아 최초의

인도계 이민자 출신의 하원의원이며, 싱 당선자는 인도계 2세대.

두 인도계 당선자는 민주당 강경파와 노선을 함께 낙태권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들이다.

지난 대선에서 두 지역구가 포함된 라우던 카운티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득표율은 57%였다.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존 맥과이어 의원(공화)의 궤석으로 치러진 상원 제10지구에서는 투터 사이퍼스 후보(공화)가 잭 스웨커 후보(민주)를 누르고 공화당 의석을 유지했다.

두 선거구의 공화당 후보 튜메이 하딩과 램 벤카타차람도 모두 소수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다.

하딩 후보는 터키계 우즈베키스탄 이민 2세이며 벤카타차람 후보는 인도계 1.5세대. 김옥채 기자

고교생에게 전자담배 판매한 여교사 체포

환각물질 THC 포함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자신이 가르치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판매한 여자 교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케이틀린 크레센트(28세)는 폴스처치 고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서 용의자가 판매한 카트리지는

마리화나 환각물질 THC 등도 포함돼 있었다. 워싱턴지역은 모두 21세 미만에게 담배 등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용의자는 6개월 이상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모두 K-12 학교에서 마약을 판매할 경우 5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해 1-5년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 절도범 징역 1년형

고급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쳤던 용의자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버지니아 앨버말 카운티 순회법원의 재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 알레바로(41세)가 각종 고급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를 훔쳐 자신의 주거지 창고 등에 보관해 왔다.

검찰이 지역 내 자전거판매상에 의뢰한 결과 피고가 훔친 자전거의 시가는 6만달러가 넘었다.

경찰당국은 피고에게 압수한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 건물을 빌려야만 했다.

피고는 작년 한 의대생의 거주지 창고에 침입해 고급 자전거를 훔쳤다.

피해자는 도단당한 자전거에 부착된 애플 에어태그로 추적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고압물 분사기로 공격한 혐의와 한 여성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 목회연구원, 신년하례식 개최

워싱턴 목회연구원(WMI, 원장 정정구)은 지난 5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구이구이 식당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새해 정기모임과 목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화합과 교제를 나눴다.

하례식은 총무 김찬영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됐다. 이어 윤정태, 윤여천, 정영만, 최윤환 등 원로목사들이 목회연구원들을 축복하며 새해를 위한 격려와 조언을 전했다.

전 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나누며 새해 목회연구원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 하례식은 전임 문정주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워싱턴 목회연구원은 오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버지니아 리치몬드 사랑의 교회에서 신년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광웅 목사(토론토 목민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세미나 등록비는 숙식비를 포함해 200달러이며, 등록 마감일은 오는 17일

(금)이다.

이번 신년세미나는 목회자들이 신약교회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목회 방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571-329-1801 총무 김찬영 목사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질문 - 오니에게

- 사립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 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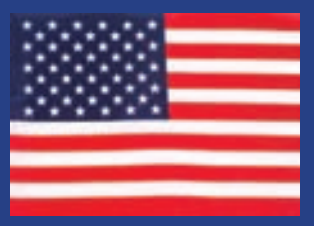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2025 · 2026 한미 세금 변화 세미나



주제 하나 2025년 미국 세법 변화(트럼프 정부)
2025년 한국 양도 증여 (상속세 부결) **재외동포 자산운영**

주제 둘 2026년 SUN SET 미국세법 변화 항목

주제 셋 비즈니스 세금문제 벌금 사례, BOI 기업오너십 신고

● 세미나 일시 : 2025년 1월 18일 (토) 오전 11시
(* 개별 상담 : 1시~3시 -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방법 : 줌 강의 (신청자는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세미나 접수 : 이메일 kyptaxinfo@gmail.com • 전화 (703) 303-5542

은행가 출신 한인 푸드 인플루언서 화제

CBS 인터뷰로 조명받아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 활약 중인 은행가 출신 한인 푸드 인플루언서가 화제다. 유명 인스타그램 푸드 인플루언서 '인칭 남편(pov_husband)'이 한인 다니엘 정(36)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토런스 지역에 거주 중인 정씨는 인스타그램 숏폼(짧은 길이의 영상) 서비스인 릴스를 통해 집에서 아내 유니스 정씨를 위해 요리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처음 '인칭 남편'으로 활동을 시작한 정씨는 8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210만 명을 거느린 대형 푸드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다.

정씨는 지난 2일 CBS와 인터뷰에서



인플루언서 다니엘 정(왼쪽)씨와 아내 유니스 정씨가 아이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pov_husband 캡처]

“아내가 임신하자 집에서 모든 요리를 다 해주겠다고 다짐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활동 계기를 밝혔다. 정씨는 평범한 가정 요리에서 벗어나 집에서 만들기 어려

운 음식이나 재밌는 컨셉을 시도해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잡지를 통으로 집에 가져와 아내에게 시시 오마카세를 선보이는가 하면, 브라질식 바비큐인 슈하스코를 집에서 직접 시도하기도 했다.

또 정씨는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만든 스페인식 햄인 하몽을 600달러에 통째로 구매해 아내와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거나, 오이소박이를 만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평가받는 등 일상 생활 속 쾌한 순간도 영상으로 올려 이목을 끌었다.

정씨는 부산 태생으로 6세 때 LA로 이민 왔다. 그는 UC 어바인을 졸업하고 USC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정씨는 기업 은행가로

금융권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 2019년 돌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요식업에 뛰어들었다. 금융권에 종사하던 지인과 함께 식당 1곳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씨는 2년도 안 돼 식당 3곳을 운영하는 외식 사업가로 변했다. 현재 그는 식당 3곳 중 햄버거 전문점 1곳만 남겨두고 모두 처분한 상태다.

한편, 팔로워들은 정씨가 새로운 식당을 창업하는지 궁금해하는 가운데 정씨는 식당 창업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CBS와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당분간 새로운 식당 창업이나 요리책 발간 등의 계획은 없다”며 “지금 하는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

80대 한인남성 차량전복 사망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지역서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 지역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FCPD)에 따르면 사고는 3일 오후 8시경 프랭크코니아 스프링필드 파크웨이 동쪽 방면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근훈(89)씨가 운전하던 포드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제방에 충돌한 뒤 전복됐다.

해당 사고로 이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줄소송' 위기

LA 한인타운 인근 굿사마리탄 병원을 비롯해 남가주에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PIH 헬스 호스피탈'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피소됐다. 'PIH 헬스 호스피탈'은 지난해 12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 1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제기한 것이다.

LA 데일리뉴스는 위티어 지역 거주자 페르디난드 리베라가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으며 PIH 헬스 호스피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리베라는 소장에서 PIH 헬스 호스피탈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사생활 침

해 보호 등에 실패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은 리베라 케이스가 첫 소송이며,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는 PIH 헬스 호스피탈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건 이상 접수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해커들은 PIH 헬스 호스피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요구 조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해커들은 PIH 헬스 호스피탈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유출된 정보는 환자의 정밀진단 및 검진 기록 810만 건 이상이 담긴 개인정보로 알려졌다.

해킹 사건 직후 PIH 헬스 호스피탈

소유의 LA 굿사마리탄 병원, 다운니, 위티어 병원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 진료 및 예약 등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은 환자와의 연락, 메시지 관리, 스케줄 확인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PIH 헬스 호스피탈이 해커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데일리뉴스는 PIH 헬스 호스피탈 측이 리베라의 소송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PIH 헬스 호스피탈 아만다 엔리쿠에즈 대변인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임상 신청 및 기술 등을 온라인 상태로 안전하게 되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가주 인구유출 5년 연속 1위

유출, 250만건 이사 트럭 분석 텍사스 8년간 인구유입 강세

가주에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사 차량 렌탈 전문업체 유출(U-Haul)이 발표한 '2024년 주별 성장 순위'에 따르면 가주가 5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떠난 주로 기록됐다.

이는 유출이 한 해 동안 약 250만 건 이상의 이사 트럭 편도 통행량을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가주 유입률은 49.2%, 유출률은 50.8%로 집계돼, 이번 순위에서도 최하위인 50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가주의 높은 세금, 비싼 주거비, 높은 생활비 등이 주요 원인이라

고 분석했다.

존 테일러 유출 국제부 대표는 “사람들이 생활비, 일자리, 삶의 질 등을 고려해 이주를 결정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주를 비롯한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여전히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이어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테네시 등의 순이다.

텍사스는 지난 8년간 꾸준히 1위나 2위를 기록해 인구 유입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출의 데이터에 따르면 앨버스는 지난해 가장 많은 이사 트럭이 도착한 도시로 꼽혔다.

강한길 기자

크레딧리포트서 의료 부채 사라진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7일 크레딧리포트(Credit Report)에서 의료 부채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

표했다. 현재 약 1500만명의 크레딧리포트에 함께 490억 달러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보고서에서 사라지고 15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약 20점 개선된다. 개인의 신용점수는 금융기관이 신용 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신용점수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연체 여부, 전체 채무액, 대출 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의

료 부채 자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규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매체들은 관측했다.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올해 여행 트렌드 '조용·독특한 체험' 뜬다

기존 '인기 명소 투어'서 탈피 인적 드문 관광지 선호 63%

여행객의 관심사가 바뀌면서 여행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의 최신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 붐이 일어났던 2022년 '인기 명소 여행' 트렌드에서 벗어나 올해는 조용하고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트렌드는 신비로운 밤하늘 경험을 추구하는 '야간여행(Noctourism, 야행)'이다.

부킹닷컴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관측, 우주 현상 체험, 별자리 추적, 오로라 관측, 야간 액티비티, 일식 추적 등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야행은 단순히 밤하늘을 관찰하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야간 도시 투어와 트리플(송로버섯) 탐색, 바다에서 보름달 피크닉,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최근 조용하고 밤하늘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린란드가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아주투어 제공]

와 이집트 홍해에서 야간 다이빙, 잠비아와 케냐의 야간 야생동물 사파리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박물관에서의 하룻밤', 영국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공룡과 함께 자는 밤' 등 야간여행 콘텐츠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기 야행 여행지는 북극광 관측을 할 수 있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다.

국내에서는 알래스카 데날리 국립공원, 아이다호 팬헨들 국유림, 메인주 아루스투크 국립야생보호구역 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린란드의 북극해는 광공해 없는 환경으로 새로운 '버킷 리스트' 목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와이에서 오스트리아에 이르는 호텔들도 별자리 관측 이벤트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세네갈, 그린란드, 몽골 등 새로운 국제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한인여행업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부지역에서는 데스밸리, 조수아 국립공원도 야간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호관광은 2월부터 '당일 조수아 국립공원 별 밤 투어'를 선보인다. 신영입 삼호관광 부사장은 "조수아 국립공원은 별뿔별을 볼 수 있는 청량한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을 만끽하는 감성의 여행지"라며 "LA에서 오후에 출발해서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숙박 부담감이 없는 가성비 최고 여행"이라고 강조했다. 129달러에 점심이 포함된다. 한인 여행업계가 추천하는 우주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는 캐나다, 알래스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북반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남반구의 뉴질랜드 테카포 호수가 대표적인 여행지"라고 설명했다.

아주투어는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와 레이카비크(14일) 상품을 항공료 포함 5350~5799달러에 모객 중이다. 엘리트 투어도 오는 20일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로 설국열차·오로라투어를 떠난다. 발리 장 엘리트투어 대표는 "빛의 예술 오로라를 감상하고 오로라와 별을 촬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국열차·오로라투어는 2999달러에 항공료는 별도다.

미래여행사는 북유럽 발트 7국 14일 일정에 노르웨이를 5일간 투어한다. 남봉규 미래여행사 대표는 "오로라가 펼쳐지는 밤하늘 축제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며 "별자리 남십자성을 볼 수 있는 남반구의 청정 해역 뉴질랜드도 추천한다"고 밝혔다.

삼호관광의 알래스카 크루즈 8일 여행 상품은 1499달러, 항공료 별도에 내놨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여행지 인기도 상승 중이다. 익스피디아의 '언팩(Unpack) 25' 보고서에 따르면, 63%의 여행객이 다음 여행에서 인적이 드문 목적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프랑스 랭스, 이탈리아 브레시아, 멕시코 코주멜, 스페인 지로나 등이 새롭게 주목받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2025년 여행은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한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

한인은행들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

남가주 지역 한인은행들이 29일로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장 먼저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은 신한은행아메리카로 개시일은 17일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21일로 뒤따른다.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는 22일날 시작하며 뱅크 오브호프와 US메트로뱅크는 23일에 시작한다. 신한은행아메리카는 종료일도 가장 빨라 24일이다. 27일 마감인 우리아메리카은행과 29일이 마감인 US메트로뱅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은행은 설 직전인 28일날이 마지막 날이다.

무료 송금 대상 국가는 은행마다 상

이하다. 뱅크오브호프는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이 대상이다.

한미은행은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가장 범위가 넓다. US메트로뱅크는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에 무료로 송금이 가능하며 PCB뱅크는 한국, 중국에 송금이 무료다. 오픈뱅크, CBB뱅크, 우리아메리카은행, 신한은행아메리카는 한국에 한정된다.

뱅크오브호프는 이에 더해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수신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통화로 송금하는 외화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통화로 송금하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송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비즈니스 송금이 아닌 개인 송금만 해당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으로 제한된다. 지점을 방문해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제시해 은행 고객임을 증명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인 은행권 관계자는 "달리가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를 위해 송금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화로 받을 때 같은 금액이라도 달러로는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는 기간에 송금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

에어프레미아, 국내선 연계운항 중단

알래스카항공 합병 여파



에어프레미아가 국내 5위 규모 항공사인 알래스카항공과의 인터라인(노선 연계운항)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일부터 알래스카항공과의 인터라인 연결 항공편의 판매를 중지했다.

인터라인은 여러 항공사가 제휴를 맺어 각각 운항하는 노선을 연계해 티켓을 한데 묶어 판매하는 협력 형태다. 승객은 여러 항공편을 티켓 한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항공사는 노선 확대 및 환승객 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7월 알래스카항공과 인터라인 협약을 맺고 알래스카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110여개와

캐나다, 중남미 5개국 노선을 연계 운항해왔다.

알래스카항공이 지난해 말 하와이안 항공 인수 후 마치고 중북 노선 감축 등 새 노선 전략 수립에 나서면서 인터라인 중단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알래스카항공과 하와이안 항공이 합병되면서 내부적으로 노선 및 파트너십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중이라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프레미아가 지난해 5월부터 대한항공과 미주 노선에서 진행하는 인터라인은 총 25개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670; MD 25016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670; PA 106823; FL ML02525; SC 25016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670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구매(리조트 등)
웨일리노레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를 대량급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트럼프, “그린란드 군대 투입도 가능”

히토류 풍부...대중 의존 낮출 의도
북극항로, 중국 선박 견제도 목적
전문가 “중국 영향력 축소에 초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7일 그린란드를 방문해 ‘마카(MAGA)’ 모자를 쓴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그린란드 누크 공항에 착륙한 트럼프 주니어의 전용기.



이런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대표 소셜미디어 캡처,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의 영토로 삼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영토 확장을 위해 동맹국에까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견 직후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로 날아가 “우리는 당신들을 잘 대할(treat) 것”이라고 했다. 그린란드 편입 작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무시했던 분위기부터 달라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일하게 남은 의문은 트럼프가 실제로 위협을 실행할지 여부”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허언(虛言)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편입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국들은 비상에 걸렸다. 2019년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던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은 TV에 출연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같은 동맹”이라고 했다.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자동 개입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헌장 5조를 든 법적 대응 방식에 가깝다.

이런 다급한 반응은 여론과 무관치 않다. 그린란드 주민 다수는 ‘마카(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이날 트럼프 주니어를 공항에서 맞이했다. 주민 마로 라이머는 “덴마크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미국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 준다면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고 했다.

무테 에게테 그린란드 총리는 신년사에서 “식민지 시대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사는 4만5000명(실제는 약 5만6000명)이 투표한다면 미국으로 편입될 것”이라며 여론을 자극했다. 동시에 덴마크를

향해선 “그린란드 독립을 방해하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미 2019년에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고, 백악관엔 특별팀까지 꾸려졌다. 다만 트럼프는 당시 “그린란드 매입은 본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라고 했다면, 이번엔 “자유 세계의 국가안보”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히토류 등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과 온난화를 통해 확보될 북극 항로 등 경제적 이권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NYT는 “트럼프가 내세운 ‘고립주의’는 단순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정의되지 않는다”며 “트럼프는 영토 확장을 즐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미국의 외교 정책을 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데서 성군

관대 교수는 “전략의 핵심은 해당 지역에서 경쟁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실제 이날 회견에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린란드에 대해선 “중국의 배가 사방에 있는 상황을 방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린란드는 북극과 북미를 잇는 고속도로”라며 “온난화로 북극해가 활성화되면 파나마 운하의 의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캐나다엔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힘’을 쓰겠다고 했다. 또 멕시코에 대해선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미 이들 국가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자국의 이익 앞에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트럼프의 전략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가능성은 낮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고, 대중 압박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등 확실한 반대급부를 얻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한국의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관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비상사태 땀 트럼프 권한 커져=트럼프가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대규모 보편적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일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이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방송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 필요성을 엄격히 요건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이 방안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트럼프 측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인수위는 CNN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강태화 기자

“트럼프팀, 멕시코 마약카르텔의 테러단체 지정 논의”

도널드 트럼프(얼굴) 대통령 당선인의 팀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8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누구를 지정하고 언제 행동할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2월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해 카르텔 간부들을 제거하거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제조소를 폭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

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테러단체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나 개인과 각종 거래가 금지되며 단체를 돕는 이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테러단체 지정은 국무부 장관이 법무·재무부 장관과 함께 결정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IS), 보코하람, 하마스 등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 지정이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미국 정부가 카르텔을 상대할 도구가 이미 충분하며 테러단체로 지정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이건 멕시코 정부에 압

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도 마약 카르텔의 테러단체 지정을 검토했다. 당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를 추진했으나 멕시코가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테러단체 지정이 무산됐다.

법무부, 트럼프 반대에도 “대선 뒤집기 특검 보고서 공개돼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8일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

한 문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두 권의 특검 수사 보고서 가운데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관련된 한 권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 외에 다른 인원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밀 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상·하원 사법위원회 지도부에만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의 임명을 받은 잭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불법보관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기밀문서 유출·불법보관 사건 관련 보고서 초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범죄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범죄의 수장이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 보도했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2025년 새해맞이 길프라이즈 특가

기간 12.27.2024-1.29.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1월 내 설치

1개 이상 구매/렌탈시
20% 할인 + \$550 상당
최고급 IH밥솥 증정



제품 구매에 따른 쿠쿠만의 새해 첫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BRAND STORE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국방부 “55경비단, 윤 체포 막는 데 투입하면 임무 취소”

국방부 “외곽경계 본연 임무 벗어나” ‘병사동원 의혹’ 경호처에 사전 경고 202경비단 파견 경찰도 “체포 협조” 경호처 인력만 관저 방어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가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병 동원 의혹을 받는 경호처를 향한 국방부의 사전 경고 성

격으로 볼 수 있다. 경호부대를 과격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의 관련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를 지원하는 부대의 원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관저 경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병력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 저지에 얽히는 것 자체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

호처와 협의하여 부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돼 있듯 외곽지역 경계임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운용되는 것은 부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게 국방부의 최종 판단이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 3일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의 이날 입장은 이런 요청을 무시할 경우 경호처가 사실상 해당 부대에 대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지가 크다. 실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는 “대처 격화에 대비해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체증을 통해 사병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호처에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인 202경비단을 파견한 경찰 역시 “적절한 영장 집행엔 협조해야 한다”란 지휘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차 집행 시도 때도 이런 입장에서 경찰 202경비단이 1차, 2차 저지선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호처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경비 임무 협

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본청 경비 업무를 맡고 있어 관저 경비 업무와는 무관하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작전 계획을 8일 구체화하고 있다. 2차 작전의 핵심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사전에 경호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이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사전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근영·이유정·나운재 기자

공수처 만들어놓고 없애자는 야당... “졸속 검찰개혁의 후과”

친명 핵심인사 “공수처 폐기해야” 연평균 200억 쓰고도 기소 5건뿐 공수처법 강행 땐 ‘빠루’ 사태까지 일각 “막가파식 설치부터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이 매달린 검찰개혁의 상징적 결과물을 4년 만에 내다 버리자는 것이다.

친명 핵심 인사는 8일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무능은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후과”라며 “정권이 바뀌면 다른 조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울산 출신 친명계 의원도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 존폐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 폐지론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친명계에서 분출했다. 지난 4일 노중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당장이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라”고 했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도 7일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의명을 원한 민주당 인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수처의 헛발질에 조바심이 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설립했던 기관이니, 공수처란 조직의 실패를 친명계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2023년 발생한 순직해병 사건 때부터 공수처를 “내놓은 자식”(민주당 관계자) 취급하기 시작했다.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던 중인 지난해 5월 민주당은 사실상 공수처를 ‘폐상’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



부권)에도 세 차례 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런 민주당의 변질을 두고 정치권에선 “폐기론을 꺼내기 앞서 막가파로 공수처를 설치했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금태섭 전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인 2019년 4월 공수처설치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극한 대치를 벌였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라졌던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당시 등장한 ‘빠루’는 이수광장 ‘동물 국회’의 상징처럼 기억되고 있다. 당시 현역 의원 28명 포함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유일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은 “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징계받기도 했다. 당시 민

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원하던 선거제 개편을 찬성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복잡한 제도”로 불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연평균 200억 원대 예산을 써왔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 문제도 있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에 불과하다.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없고, 기소권의 구멍도 크다.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하는 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수 없다. 이윤제(형법) 명지대 교수는 “(구조적) 한계가 정비 안 된 채로 갑자기 너무 큰 사건을 맡게 돼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윤 체포’ 막히자... 이재명 “경호처 없애야”

“지도부 회의서 모두가 폐지 얘기” 대통령경호법 개정안도 6건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변에 “대통령실 직속 대통령 경호처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가 8일 전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조수사

본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수사의 편법·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가로막았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경호처 폐지를 얘기하고 있다”며 “경호 인력 지휘 자체를 대통령실이 못하도록 조직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6~8일까지 사

흘간 대통령경호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건 제출했다.

대부분 대통령실 직속 기구 형태의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민형배·황명선 의원 안은 경찰청에 치안정감 이끄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 안은 경찰청에 대통령 등 요인(要人) 경호를 맡는 국가 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과 함께 ‘사병

절차 방해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안은 경찰청 산하 경호 조직의 이름을 경호국으로 명명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외국에선 대통령 경호 담당 조직이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부처 산하”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지금 같은 형태로 대통령 경호실을 만들었는데, 군사정부의 잔재를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I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챈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 MD · DC 면허

- 대한외교 불어/중어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AN. 9th - JAN. 16th, 2025

참기름과 들기름 향이 가득한
바삭 바삭

서천 재래김

ASSI ROASTED & SEASONED LAVER



~~\$15.99~~ → **\$8.999**
 9X3X4 G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R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00 Fernwell Hight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20 Eiden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ville, MD
8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백악관·펜타곤·의회에 '중국 견제론' 초강경파 포진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미국 우위론자가 득세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 우선론자와 대외 개입 자제론자로 채워지고 있다. 상·하원과 사법부까지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임기가 4년으로 한정되고,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르면 정책 추진 모멘텀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2기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 빠른 정책 추진을 위해 트럼프는 충성과 들로 내각을 꾸렸다. 내각 인사들의 성향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청사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정책 성향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먼저 마이크 월츠(51)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보자. 도널드 럼즈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정책보좌역을 지냈다. 그린베레(미국 육군 특전부대) 출신으로 트럼프 충성파다. 그는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란을 꼽는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초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러시아에 많은 무기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의 대러시아 지원을 끊어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이란 압박으로 시작해 이란-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을 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대중국 강경파인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발원, 시진핑 정권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인종 학대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중요하고, 중국보다 작고 낙후한 미국의 조선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 '리얼 클리어 디펜스' 기고문에서 그는 중국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 선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업계에 대한 장기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장 필요한 선박 건조·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일본·인도 등 동맹과의 협력도 역설해왔다.

중국식 독재냐. 미국식 자유냐 갈림길

국무장관 내정자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54)도 대중국 강경론자다. 중국의 도전을 단순한 경제 차원의 경쟁이 아닌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2022년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그는 "21세기 역사는 부상하는 독재국가가가 가장 강력한 자유국가를 대체하느냐, 아니면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미국 국민이 자유와 정의에 기반해 설립된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느냐, 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상원의원이던 지난해 9월 그가 발간한 '중국이 만든 세계' 보고서는 중국이 절도와 시장 왜곡 보조금 등으로 21세기 산업을 선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 문제에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인권과 법치주의 발전을 모니터링하는 미국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을 맡아 중국공산당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2020년에는 위구르 인종 감금·학대에 대한 강경 조치를 했다는 이유에다 홍콩 민주 시위대 진압 세력에게 제재를 가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제재 대상에 두 차례나 올랐다. 북한 인권법 공동 발의자이자 대북 강경파다.

루비오는 오랜 기간 대만독립을 지지해왔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입장과는 다르다. 미국-대만 관계 강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위한 군사적 지원 증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콜비 차관,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

피트 헤그세스(45) 국방장관 내정자는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프린스턴대 ROTC 출신 장교인 그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 경험이 있다. 헤그세스는 극우 기독교 극단주의 성향으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불허되자 군 복무를 그만뒀다. 비개입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트럼프 충성파다. 트럼프 1기 때 김정은-트럼프 대화를 지지했지만,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이력이 눈에 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나토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안보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유엔이 반미국적·반이스라엘적·반자유적 글로벌 기구라고 비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

원에도 부정적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미국의 문명을 종결시키려 한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이 미국의 패배를 노리고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46)는 국방 정책실무 총괄 인사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왔으며, 중국 견제 우선론자다. 그는 미군 주력부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자주 언급해왔다.

자국 방어를 위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국 방어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제한 등 군비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외교·군사위에 전술핵 재배치론자

미국 의회로 가보자. 제119대 상원에서 각각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된 짐 리시(82) 의원과 로저 위커(74)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왔다. 리시 의원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주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같은 핵 부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 협력의그룹(NCG) 설치에 대해 NCG가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향후 미국 국방 예산 5% 증액이 포함된 군비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공화당 인사들은 "핵 확산이 핵 도미노 현상을 낳고 지역 안보 정세를 악화시킨다"는 민주당의 핵 비확산 기조와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의 정책 성향을 종합해보자. 첫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인상하려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9배 올리라고 언급했다. 둘째, 대중국 강경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단순히 고율 관세에 기반한 무역 정책을 넘어서 체제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후반기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체제 대결 또는 이념 대결로 치달았다.

셋째, 향후 한·미 동맹을 중국 견제 방향으로 돌고 갈 것이다. 한·미 양국의 위협 인식 재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북한 위협에 중점을 뒀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예상된다. 넷째, 바이든 정부의 인-태 지역 핵전략과는 다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중국의 핵 사용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태 지역 핵 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 재배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 부처는 일회일비하지 말아야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 모델을 연구한 그레이엄 엘리슨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즉, 정부의 확립적이고 합리적 정책 결정 모델, 이미 형성된 정부 조직의 제도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 모델, 그리고 관료사회의 다양한 경쟁과 협상에 따른 정책 결정 모델이 그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확립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하기에는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부 조직의 제도적 절차에 의한 정책 결정도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자신과 부처 이익에 따라 경쟁·협상·연합 등을 형성해 정책 결정을 내놓는 모델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걸맞지 않다.

정치적 리더십이 불안한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부처 및 수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추진은 자제해야 한다. 정치 위기를 타개하고 트럼프 2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해법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은 일회일비하지 말고 전문성에 따라 기존 전략 목표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이행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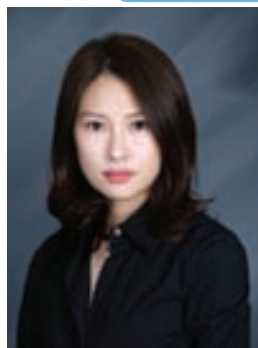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브라보
마이
우메켄 효소환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 36가지 과일 🥕 27가지 야채 🌿 68가지 허브 및 해초 🌾 29가지 곡물과 버섯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과체중이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410)750-9656 • 모드니에(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내란특검 '3자 추천' 바꿔 재발의 권성동 "당론 어긴 김상욱에 탈당 권유"... 김 의원 "매카시즘, 탈당 생각 없다"

야당 오늘 발의... 여야 수정안 협상
내란특검 재표결 2표 모자라 부결
기준안 '여당 빼고 야당 추천' 충돌
협상배경, 여 '이탈표' 야 '신속특검'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제기된 8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 원 안)이 포착됐다.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 속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은 이날 낮 12시53분쯤 수행원 3~4명과 함께 관저 출입문까지 내려와 약 7분간 주변을 둘러봤다. [사진 오마이TV]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직후 양당 지도부는 각각 내란 특검법에 한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 재표결이 부결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제3자 추천 방식 등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한 내란 특검을 내일(9일) 최우선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 시점으로는 14일 또는 16일이 유력하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조 대변인은 "추천 주체는 원내대표단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예상보다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며 "여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으면 빨리 특검을 발족해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특검 중 내란 특검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하고, 여당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이탈표가 점증하는 상황을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독소조항과 위

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명태균 의총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당내 반대 여론이 높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어떤 제3자를 추천 주체로 둘지, 독소조항은 어떻게 제거할지 협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표결이 이뤄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가 나왔다. 가결 정족수가 200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 2표와 4표 차로 부결·폐기된 셈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와 비교하면 내란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 늘었고, 김건희 특검법은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크게 늘지 않았

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차 부결 당론을 관철할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의 이탈표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재표결에서 특검법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며 "해당행위로 몰려 탈당 요구를 받는 건 일종의 마녀사냥이고, 매카시즘"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농업 4법'은 부결됐다. 국회법·국회중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김나환·성지원 기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 투표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왼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왼쪽 사진)과 이재명 대표(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뉴스1]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법정구속... '돈봉투'는 무죄

1심, 외곽단체 후원금 유죄로 인정
돈봉투 사건 발단 이정근 통화녹음

"위법 수집"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전달한 윤관석은 유죄, 논란일 듯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기소 내용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의한 기소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송 대표의 혐의 사건

을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개입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눈 뒤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송 대표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후원회 관리 등 후원자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규정한 뒤 "송 대표는 먹사연 활동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송 대표가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정치자금 모집과 그 방법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잘 알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먹사연 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 20명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건네고 지역본부장들에게도 650만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돈봉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별

건 수사에서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다른 사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수사받던 중 2022년 10월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는데, 이 안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무슨 녹음파일도 있는지 모르고 제출했다' (알선수재 사건) 무죄 증거로 사용될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증명했다"며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알선수재 사건 때 수집한 통화 녹음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새 사건을 시작한 것은 부당하다. 증

거를 임의제출 받으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허중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과 1심 판단이 다른 혼란스러운 판결이 나온 건 분명하다"며 "여러 돈봉투 사건 결과가 대법원에서 점점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준영·최서민 기자

맛있는 유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1월~2월 지금 집 살 좋은 기회!

- 폴스저치 콘도 \$246,900
방, 1,1,1, 모자이크 근처, 완전 리모델링, 495/66/29/50 고흥요지, 콘도 피 울 유틸리티 포함
- 센터빌 콘도 렌트 \$2,100
방 2, 3/2, 마루, 발코니 29/66/28/50, Himart, Lotte 인근
-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렌트 \$1,9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미용실 \$90,000
- 개인스빌 상업용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Realty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윤측, 관할권 또 언급... “중앙지법에 영장청구 댄 재판 응할 것”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는 불법 선임계 내려 갔지만 공수처가 거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침 불변 “면담은 선임계 낸 후가 맞아”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 주기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무효(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선 기소하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 분열이 생기고 있고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



식사할 감는 관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이어진 외곽 철책 출입문에서 관계자들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식사물로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 출입문 앞에는 원형 철조망도 보인다. 김현동 기자

들어하고 있어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들이 희생돼선 안 되기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작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최고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건 내란”이라며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집행한다는 것도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출석 일자가 관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등과 경호나 신변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관할은 분명히 중앙지법이다. (공수처법에) 예외적으로 주

거지 기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피의자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했을 때의 예외적 경우”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영장을 청구할 만큼 증거가 확보했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삭제’ 논란에 대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며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가면 갈비탕이냐, 아니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도 했다. 반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체포 시도에 관해) 경찰과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수처 측에서 “민원실에 맡겨 두라”며 면담을 거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수사팀에 선임계를 내려 왔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지금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면담은 선임계를 낸 다음 상황이라는 절차를 설명했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민·최서민 기자

“대통령은 장관 임명 동의제로 견제... 국회는 소환제로 견제”

(국회)

대통령·국회, 권한과 책임 조정해야 여소야대 속 대통령 정책못 펴는데 기관장 인사권은 독점하는 ‘모순’ 국회 권한 늘리되 책임 묻는 개헌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약적 대통령제를 탈피해야한다는 개헌론이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은 필요하지만 관성적으로 제약적 대통령제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말 제약적이었다면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까지 여소야대 벽을 뚫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했겠냐”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의 한 축은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스스로 제약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국회의 권한을 일부 늘리되 국회가 폭주하면 엄격히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적 대통령'은 착시판 얘기냐. “냉정하게 여소야대 구도에서 대



윤희숙 전 의원은 2020년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자유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일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됐다. [출처:중앙일보]

통령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 수도 없고, 정국의 드라이브를 걸 공간도 좁다. 그러나 한편으론 각종 권력 기관장의 인사권을 전 대통령에게 많은 이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정작 펼 할 수는 없는데, 그들의 세계에선 제약처럼 대우받는 모순적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개헌을 논의할 때 ‘대통령제는 제약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원집정부제·내각제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니 권력구조 개편 논

의가 붕 뜬 감이 있다. 개헌은 현 대통령제의 모순을 바로 잡고 대통령·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뒀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바꾸냐. “대통령 권한을 크게 정책·예산·인사권으로 볼 때 핵심은 인사권 조정이다. 권력기관장이나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인준을 거치도록 개헌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기능도 대통령 밑에 둘 게 아니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지 않고, 의원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 극한 대치를 해소할 여지가 생긴다. 국회 인준을 거친 장관에게 자연스레 적절한 힘이 실리게 되고, 행정부가 역동성을 얻게 되면서 일종의 책임 장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감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건,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할 때 언제나 감시 받는다는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차원이다.”

-국회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이냐. “그래서 국회가 무책임한 행위를 하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헌 사항인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 지금 국회는 권한만 쥐고 책임은 안 진다. 더불어민주당만 봐도 현 정부 들어 탄핵안을 29번이나 발의해놓고, 직무정지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나몰라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한 정치인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고위 공

무원의 탄핵 소추안을 남발했다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할 만큼 허술한 탄핵을 시도했다면 관련 의원은 국민소환제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내각제, 4년 중임제는 대안이 될 수 없냐.

“의원내각제는 의원 개개인의 엄격한 공적 마인드와 수준 높은 국회가 필수 조건이다. 지금처럼 패거리 정치 문화, 묻지마식 정쟁이 그득한 상황에서는 외려 내각제가 독이 될 수 있다. 4년 중임제는 장단이 있지만, 전반기 4년간 포퓰리즘 광풍이 불어닥칠 우려가 크다.”

-조기대선 시 여당에 승산이 있다고 보냐. “계엄 사태로 초래된 현재 구도도만 놓고 보면 여당이 확실히 불리하다. 하지만 여권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한국이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되길 바라는 국민 열망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열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봐줘야 0.5 정도 되는 구대의 영역에 있는 정치인이다. 여권에서 국민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참신한 주자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손국희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겨울 아이슬란드 오로라 사진 출사

★ 일시: 2025년 3월 20일 ~ 3월 30일 ★

20년 경력의 전문 풍경 사진작가와 함께 환상적이며 우주의 마법과도 같은 오로라와 지구가면서 도 다른 행성인 화성에 온듯함과 불과 얼음 그리고 빙하와 바이킹의 땅인 아이슬란드 겨울의 설원, 설경의 드라마틱한 자연경관과 오로라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하세요! 사진작가와 함께 여행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6명 제한 (현재 3자리 남았습니다)
풍경사진작가님 (초보, 중급, 고급) 워크샵 병행
전문 작가님과 함께 일반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

문의: 703-341-7222 (메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세지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풍경사진에 대해 배우실 분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2026학년도 증원 무효로 하고 의료인력 추계기구서 논의”

40개 의대 학장에 '의정갈등 해법' 물어보니

14명 “기존 3058명으로 원상복구”
“내년엔 감축해 1500명만 뽑자”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자”

의대 증원 파동이 해를 넘겨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학장의 상당수가 이런 대안을 내놴. 중앙일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는커녕 의대 신입생의 휴학 주장이 나오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7~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대학원 학장에게 해법을 물었다.

인터뷰에 응한 학장 21명 중 14명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 조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린 1509명을 무효로 하자는 것이다. 학장들은 “의대생이 3월에 복학하지 않고 2년 연속 마비되면 한국 의료야 풀이킬 수 없는 재앙에 휩싸일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걱정했다. 19개 대학 학장들은 대답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학장들이 바라는 조치는 정부의 정원 동결 선언이다. 영남권의 A의대 학

장은 “내년 정원은 증원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고, 향후 정원은 의·정을 포함한 기구에서 추계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 2년 연속 휴학은 한국 의료의 붕괴로 가는 길이며 후유증이 막대한 만큼 어떡하든 막아야 한다”며 “첫 단추가 정부의 원상복구 선언”이라고 말했다. 호남·제주권의 B의대 학장은 “정부가 먼저 정원 동결 선언을 해서 신뢰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식으로 반

복하면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C의대 학장은 “지금은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 때다. 기존 정원(3058명)으로 다시 돌아가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학장들의 “증원 무효화”와 간극이 크다. 충청·강원권의 D의대 학장은 “(이대로 가자) 2026학년도에 또 2000명을 늘리면 찬반으로 나뉘어 사회가 두 쪽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소나 증원 의견도 있다. 호남·제주권의 E의대 학장은 “올해 늘린 1509명만큼 2026학년도 정원을 줄여서 1500명 정도만 뽑자”고 말했다.

반면에 수도권 F의대 학장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의대생이 피해를 봤지만, 그동안 국민은 더 큰 고통을 감내했다. 증원한 만큼 줄이자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소속 증원을 주장한 학장도 있다. 수도권 G의대 학장은 “제대로 교육하려면 한 해 정원이 100명은 돼야 한다. 정

원 40~50명인 미니 의대 17곳은 증원을 유지하고, 증원을 원하지 않는 지방 국립대는 원상 복구하자”고 말했다. 영남권의 H의대 학장은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35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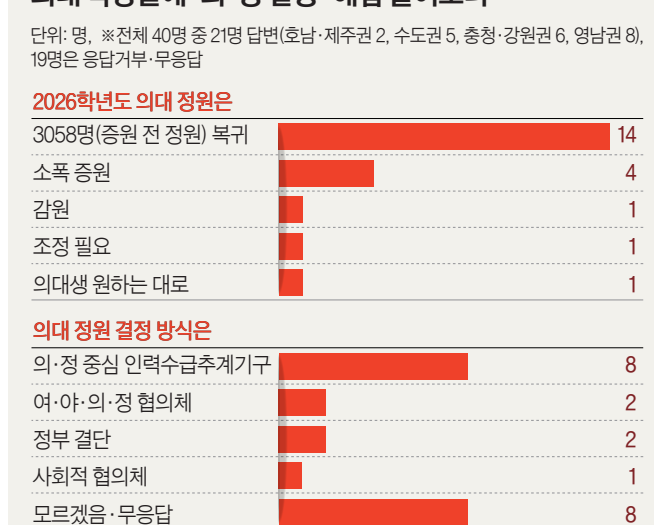
국회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 사태 해결을 주도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충청·강원권의 I의대 학장은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국회가 빨리 나서야 한다”며 “국회 주도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하루빨리 꾸리고 대한협회와 전공의·의대생 단체를 모두 다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추계기구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의료계도 더 이상 ‘드러눅기’ 전략만 구사할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추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영남권의 J의대 학장은 “복지부·교육부장관의 사과에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예스더·정종훈·채혜선·남수현 기자

의대 학장들에 '의·정 갈등' 해법 물어보니



의대 학장들의 말말말

영남권 A의대 학장
“의대생 2년 연속 휴학은 한국 의료 붕괴로 가는 길. 후유증 큰 만큼 어떻게든 막아야”

호남·제주권 B의대 학장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만 반복 말아야. 먼저 동결 등 선언해야 의료계 신뢰 얻어”

충청·강원권 D의대 학장
“또 2000명 증원 가면 사회 반쪽 날 것.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사회적 합의·실적 필요”

수도권 F의대 학장
“전공의·의대생 피해 입었지만, 국민은 더 큰 고통. 증원한 만큼 줄이자는 건 말도 안 돼”

수도권 G의대 학장
“정원 40~50명인 미니 의대는 증원 유지. 증원 원하지 않는 지방 국립대는 원상 복구하자”

전문가들 “정부는 증원 유예, 의료계는 대화 참여... 절충점 찾아야”

“의대 정원 결정할 기구 만들어야”
“필수 의료 살리는 의료개혁은 계속”

“올해보다 적은)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향후 재조정해야 한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증원을 유예하고, 원래 정원인 3058명으로 돌아가야 한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올해 늘어난 인원만큼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이 보는 2026학년도 ‘적정’ 의대 정원은 앞선

2025학년도(1509명 증원)와 비교해 다양해졌다. 정부 원안인 2000명 증원 주장은 없었고, 대부분 소속 증원과 감원 사이에 걸쳐 있었다. 중앙일보가 8일 의대 증원에 찬반 의견 등을 내온 전문가 12명에 질의한 결과다.

이들은 당장 급한 2026학년도 정원에선 ‘대규모 증원’을 강조해 온 정부와 ‘전면 백지화’를 외치는 의료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의·정 갈등이 더 깊어지고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정부·정치권은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 전공

의·의대생이 돌아올 길부터 터줘야 한다. 의료계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이 나 2026학년도 모집 전면 중단 같은 무리한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성 전 대한의학회장은 “우선 400~600명 수준으로 증원 폭을 낮추고, 향후 정원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장기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의료 로드맵’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의료계 등이 의대 정원 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꾸리는 식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거버넌스 체계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의료계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컸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의·정 갈등 사태가 1년이나 됐으니 의료계도 무조건 ‘정원을 줄이자’고 이야기하기보다 체계적 근거를 갖고 대화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 없이 관망하는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대 정원만 문제 삼을 뿐, 의·정 갈등 해법을 제대로 낸 적이 없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의대 증원과 병행한 의료개혁은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되,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기중 한국한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 사태의 발단이 필수·지역 의료 의사 부족이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제주항공 참사’ 가따다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불에 타고 산산조각이 났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언론은 처음 ‘무안공항 참사’라고도, ‘제주항공 참사’라고도 했다. 지금은 주로 ‘제주항공 참사’라고 부른다. 모두 ‘참사’라고는 했지만 지역명과 기업명을 두고는 정리가 덜 났었다.

언론이 ‘사고’라고 하지 않은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고’에는 ‘우연’이란 의미가 깔려 있다. ‘참사’라고 불러야 사건의 책임 주체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다.

‘무안공항 참사’라는 표현에는 지역명이 들어간다. 그 지역에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대신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은 감춰진다.

2007년 12월 7일 일어난 삼성중공업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불렸다. 기업의 책임은 희석됐고, 지역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졌다. 그래서 언론은 대부분 ‘제주항공 참사’라고 한다.

‘제주항공 참사’로 숨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라고 한다. 그들에게 희생자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를 떠나 그들의 죽음이 개인적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죽음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자랑스런, 부끄러운 탄핵



김경준
사회부 기자

선출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자들에게 지속해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응답했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반면, 자랑스러운 모습 뒤 부끄러운 그림자도 자리 잡고 있다. 탄핵은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헌법적 도구인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켜버렸다. 이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외교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다시 한번 초래했다.

야당은 정치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물론 명분은 있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미뤘다.

하지만 설사 한 총리가 탄핵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해도 야당은 정부와 정치적 협력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루고 정치적 대립을 최

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속해서 선을 넘으면 탄핵하겠다는 등 한 총리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그도 탄핵됐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두 명의 국가 최고위직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 해결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깊어짐에 따라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은 ‘트럼프발 불안정성’을 걱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한미관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정부와의 물밑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연속 2차례 탄핵으로 튀는 성격의 남의 나라 대통령을 걱정하다가 되레 얼마나 더 될 수 있고 불안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말았다.

이번 탄핵 사태는 국민 주권 실현의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대립 대신 협력을 통해 국정 안정과 외교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길 기대한다.

마켓나우

안정성·수익률 모두 잡는 비트코인 투자법



최정혁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

했던 그는 이제 비트코인의 분산투자 효과에 주목하며 ‘디지털 골드’라고 칭한다. 여러모로 급과 배정이 유사한 비트코인이 금과 마찬가지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탓에 개별 자산으로선 리스크가 크지만,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핑크가 언급한 분산투자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월간 수익률로 몇 가지 계산을 해봤다. 먼저 주식(S&P500 지수)·채권(미국 장기 국채)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는 각각 0.3

과 0.1이었다. 이처럼 낮은 상관계수는 비트코인이 전통적 자산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분산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주식·채권·비트코인으로 구성된 가상 포트폴리오를 설정해 비트코인 편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동성과 샤프지수(단위 리스크 대비 수익률 지표)를 측정해 결과,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을 늘릴수록 두 수치 모두 상승했다. 비트코인 편입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키우지만, 그보다 수익률 상승 폭이 더 커서 투자 효율성이 향상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편입에 따른 변동성 상승은 제한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 투자 비중은 얼마일까? 60/40 포트폴리오(주식 60%, 채권 40%)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2~5%가 적정해 보인다. 이 수준이면 변동성의 큰 변화 없이 샤프지수를 25~65% 정도 향상할 수 있다. 설령 투자금을 모두 잃어도 최대 5% 손실에 그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13) 63일간의 권한대행

고건·이헌재 콤비플레이... 오히려 더 국정 안정

노무현 시대를 되짚어 보면 '직무정지' 사태를 생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63일간의 '청와대 유예'도 엄연한 참여정부의 일부였으니까. 대통령은 졸지에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됐고,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 고건에게 넘어갔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탄핵 사태 자체가 뜻밖이고, 처음 겪는 일이라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불안감 또한 높았다.

노무현은 이런 날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일까. 앞서 살펴봤듯, 그가 당선인 시절 고건에게 총리 자리를 제의하면서 '몽돌과 반침대 관계'를 논했던 일을 떠올리지 않았을 리 없다. "몽돌 격인 내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니 당신이 나와 도와 반침대 노릇을 해달라"는 취지 아니었겠나.

그런데 노무현은 유예 생활을 맞았고, 고건은 대형 사고를 친 그를 대신해 국정을 지휘하는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어떻게 작동되었던 것일까.

'몽돌과 반침대' 현실이 돼버렸다

오전 11시 56분 탄핵안이 가결되자 고건은 특유의 노련한 행정 경험을 발휘해 나갔다. 곧바로 운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과도기가 길어선 안 된다. 삼의 기간을 가급적 단축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허승관 행정부 장관에게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나갔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불렀다. "경제는 부총리가 알아서 해 주시오."

이헌재로서는 고건의 '백지수표'식 위임에 잠시 당황했으나 소신껏 해보리라 작정했다. 박정희 시해 사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규하였으나 경제는 부총리 신현확이 100% 좌지우지하면서 오히려 필요한 구조조정까지 모두 해치운 선례도 있지 않은가.

고건은 이어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지방 행사 중이니 청와대에 복귀하는 오후 5시에 탄핵안 의결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대통령 직무는 의결서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정지되지만, 화급한 국면인 만큼 그 전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역할을 실질적으로 개시해 나갔다.

오후 5시가 좀 지나 헬기 편으로 청와



2004년 5월 2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가 국무회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고 총리는 각료 제정권 행사 요청을 고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 복귀 10여일 만이었다. 물러나는 총리가 장관 임명을 제청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연합뉴스]

와대에 도착한 노무현은 답답했다.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정책과 국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학습에 전념하겠습니다."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가는 노무현에게 고건은 "자주 보고 자료를 올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무 대꾸도 없었다.

엄밀히 따지면 오후 내내 취한 고건의 조치나 지시는 월권의 소지가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점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시비하지 않았다.

대행체제 최우선 과제는 국정공백 방지

막상 대행 체제가 출범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 따위는 없었다. 그림을 새로 그려야 했다. 고건은 권한대행 체제의 최우선 과제를 '국정 공백의 방지'에 두고 정부 시스템을 가동했다. 뭉뚱그려도 전 쟁 안 나게 하고, 한 달 뒤로 예정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망설임 없이 치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고건 대행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대행체제 출범 후 11일 만에 거부권까지 행사했다. 3월 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 사건 관련자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노조가 합세한 탄핵 반대 촛불시위로 흔들렸던 치안과 질서 유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11일 만에 사면법 등 거부권 행사 고건 대행은 호락호락 안했다

경제 현안은 이 부총리에게 일임 대통령 3번 통화, 청와대 일선 안해



2004년 3월 17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수여된 상장.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 주는 상장에 다른 직함이 사용됐다. [중앙포토]

했다. 고건은 탄핵 열흘 뒤에 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18개 시민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시위 자제를 요청했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통해 양대 노총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촛불시위는 잦아들었고, 2003년 내내 고조됐던 노사분규 역시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탄핵소추 당일 고건 총리로부터 경제 부문을 위임받은 이헌재 부총리는 그날 오후에만 한강 다리를 일곱 번 건너다녔다. 경제 부처들이 과천청사를 쓰던 시절, 임시 국무회의와 비상대책 회의, 경제장관회의, 은행장 회의 등 쏟

아지는 회의를 뛰어다니며 시장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

이헌재 부총리 "한국경제 내가 책임진다"

이 부총리는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면서 "책임은 내가 진다"고 강조했다. 해외 시각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한국 경제의 기초는 여전히 강하다. 정치 불안은 일시적인 만큼 한국 투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메일을 IMF(국제통화기금)와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기관, 해외 금융기관 등 1000여 곳에 발송하도록 보냈다.

주말에는 기자들을 불러 "시장을 비관해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겁을 주기까지 했다. 폭락하던 주식시장은 주말을 넘기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고건은 역시 노련했다. 권한대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도 청와대의 심기를 늘 보살폈다.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국정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계속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자신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배석해서 청와대에 전달토록 했다. 덕분에 노무현은 직무만 정지됐을 뿐 국정 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 후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고건은 권한대행 기간 노 대통령과 세 번 통화했다(『고건 회고록』). 박봉흠 정책실장에게 청와대와 내각의 가교 역할을 맡긴 직후와 사면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직전, 4월에 발생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에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직후에 각각 관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국무회의 등 모든 회의를 청와대가 아닌 정부 종합청사에서 주재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직후에 김우식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매주 한 차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했다. 그만큼 유예된 노무현을 자극할지 모를 행동을 철저히 삼갔다. 고건 스스로 "권한대행이 아니라 고난 대행"이라고 토로했을 정도였다.

고건 "난 권한대행 아닌 '고난' 대행"

노무현은 직무정지 63일 만인 5월 14

일,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간 고건 대행 체제의 대한민국은 큰 동요 없이 굴러갔다지만, 정치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선부른 탄핵 시도가 역풍을 맞으면서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단독 다수당으로 올라섰다. 탄핵 직전 20%대였던 노무현의 지지율 역시 40%대로 경풍 뒤흔었다. 탄핵 바람을 타고 17대 총선에서 대거 금배지를 따낸 '탄돌이'들은 대통령 주변 386들과 함께 기세등등했다.

환호의 뒤편에서 노무현의 공백기를 이끌었던 고건은 퇴장을 준비했고, 이헌재는 386들과의 신경전에 휘말리면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산전수전을 겪어 온 고건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에게 "대행 역할이 끝나면 미국 대학으로 공부하러 갈 것"이라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흘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노무현이 복귀한 날, 축하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노무현은 만류는 했으나 이미 후임 총리감을 물색하고 있었다. 노무현은 2006년 어느 자리에서 "고건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였다"고 말해 큰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헌재는 노무현의 복귀 이후 10개월을 더 일했지만,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냈다. 노무현의 신임은 여전했다지만, 386 세력들과 힘겨운 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의 소신 행정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는 독이 됐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기만하고 자신감 있는 언행이 386들에게는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는 끄떡없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때부터 미운털이 박히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헌재의 회고다. 노무현 복귀 이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이른바 개혁 정책을 앞세운 대통령 주변 개혁파들의 공세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듬해 3월에 참여정부를 떠나게 된다.

참회한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불안하기만 했던 63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동안 국정은 참여정부 5년 가운데 가장 조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진짜 대통령은 청와대에 갇혀서 꼼짝도 못 하고 있는데 말이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와는 너무 대비된다. 특히 최근의 혼란 지속이 초래하고 있는 국제신인도 추락을 감안하면 당시의 권한대행 체제는 대단한 선방이었던 셈이다.

이장구·손병수·고성표·박익우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시 설

‘영장 쇼핑’ 비난하던 윤 대통령, 자신들이 ‘법원 쇼핑’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을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사전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청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응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법적 절차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주장인데, 공감하기 힘들다. 공수처를 향해 ‘영장 쇼핑’이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법원 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없다. 사법부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무효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윤 대

수사 불응 꺾지 않으며 “중앙지법 청구 때는 수용” 당당히 조사받으면 해결... 여야 특검 협상 나서야

통령 측이 위법·무효라며 낸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물리적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영장이라는 취지다. 우리 헌법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 별도의 항고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일단 승복하고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등에서 다투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누구든지 편의대로 고를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윤 대통령이 부적절한 주장을 지속하는 사이 체포

영장 재집행을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이 ‘마지막 집행’이라고까지 하며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도 이에 맞서 버스 여러 대와 철조망 등으로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자칫 공권력 사이에 위험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나와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허위 도피설까지 나올 지경이니 국격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처신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한다. 내란 피의자로서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출석 의원 3분의 2인 200명에 2표가 모자라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인데,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잠재우려면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서는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당내 이탈표가 이번 본회의 재투표 과정에서 이전보다 늘어난 현실을 직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특검 법안을 어떻게 고칠지 자체 안을 마련해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 흑한 길어지는데 난국 풀 리더십이 없다

계엄과 탄핵의 충격과에 내수 침체가 겹치며 한국 경제가 암울한 새해를 맞고 있다. 우울한 전망과 소식이 이어지면서 경제의 흑한이 길어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년 만에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생산 증가세 둔화 속에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경기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근거는 쫓겨 얼어붙은 소비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간 9.4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다.

우려 섞인 눈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건 해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싸늘하기 그지없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 달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IB 8곳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7%다. 석 달 만에 0.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1.8%)를 밑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비관적 전망의 근거다.

기업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국내 수출 주력 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어제 실적 발표에 따르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에 그쳤다.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 경영진이 사과

문을 뱐던 3분기보다도 적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 탓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이 겹쳤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도 기업 경영에는 불안 요인이다.

문제는 내외외환의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국을 헤쳐가는 데 필요한 리더십 부재다.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각종 현안을 틀어쥐고 챙겨야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야당은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가 하면, 꺾기하면 탄핵을 들먹이며 최 대행을 흔들고 있다.

정치권에 정국 수습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그야말로 난망이다. 정쟁의 늪에 빠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반복해 추진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는 지지부진한 야당의 행태는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외환시장 간담회를 열었지만, 경제 살리기에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뿐이다. 경제에는 쇼가 아닌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누가 배신자인가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조폭 세계와 닮아서일까. 한국 정치에선 유난히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다. 배신자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렵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립 속에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혀 고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도 ‘국민 눈높이’를 외치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했다고 쫓겨났다.

12·3 계엄 이후 배신자 프레임은 더 노골화하는 중이다. 이 프레임에서 ‘옳고 그름’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오직 ‘내 편’ ‘내 안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보다 대통령과 당 대표에게 충성하고, 극렬 지지층을 따라간다. 의리란 말도 아깝다. 조폭식 결속일 따름이다.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의결에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12명(추정)도 배신자로 몰렸다. 최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고 배신자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가. 18명의 의원이 아니었다면 국민의 힘은 ‘계엄 비호당’이란 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최 대행의 결심이 아니었으면 탄핵 심판은 미로에 갇혔을 것이다. 그의 결단이 민생을 공포에 빠뜨리는 불확실성에 마침표 하나를 찍은 것이다.

반면에 계엄 선포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40여명)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다. 강성 지지층에게 배신자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한다는 계산이 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금제지를 달면서 하는 국회의원 선거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돼 있다.

법원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국가 이익인가. 그들은 왜 윤 대통령에게 관저를 나와 수사에 응하라고 하지 않는가. 사법 시스템이 망가져도 자신과 자기편만 지키면 되는가. 그런 것이야말로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충성과 배신의 개념을

잘못 체화했다. 충성의 대상을 대통령 개인으로 보는 듯하다. 그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이라는 사법 절차보다 대통령을 우선하는 것 자체가 호위무사의 모습 아닌가.

정작 국민에 대한 배신을 논하자면 윤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헌법 준수”를 맹세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헌법 제66조). 그러나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12·3 계엄이 어떻게 헌법 준수 행위인가.

대통령의 중대 책무가 국민 통합임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 나라의 변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놓았다. 그는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지자들을 “애국시민 여러분”이라고 부르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우리 더 힘을 내십시오!”라고도 했다.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인가. 선진

12·3 계엄 후 배신자 프레임 기승 나라보다 진영에 충성 노골화 분열 선동, 법치 파괴가 국민 배신

사회에 법원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과 싸우는 대통령이 있는가. 이것이 분열의 선동이 아니면 무엇인가.

‘법치’는 문명국가의 대통령이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다. 권력자든, 소시민이든 누구나 법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법치 파괴로 치닫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불복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 앞으로 일반 시민이 수사와 영장을 거부할 때 우리 사회는 뭐라고 할 것인가. 윤 대통령은 수사와 영장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그러한 이의 제기 역시 사법 제도와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게 국민이 믿는 법치주의다.

아직도 계엄과 탄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파괴하는 이가 지도자가 되는 비극은 더는 없어야 한다.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기자재보 및 기사 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민타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2025년 새해 달력 드립니다.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 운영, 모시고 갑니다.

- | | |
|------------------------------------|----------------|
| 1차 3/25~4/04 | 4차 9/16~9/26 |
| 2차 4/15~4/25 마라톤 | 5차 10/14~10/24 |
| 3차 6/17~6/27 | 6차 10/21~10/31 |
| 3세대가 함께하는 투어 영어&한국어 가이드 | 7차 10/28~11/07 |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제주(옵션)

-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
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3박 4일 동경 \$1149+항공	5박 6일 동경&오사카 \$1899+항공
3박 4일 오사카 \$1149+항공	

TMCI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 / 서울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방콕/파타야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나트랑/달랏	대만	싱가폴
3박 5일 \$4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항공철박사원, 코끼리 트레이닝, 악어농장, 백만년바위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6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명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부강, 일본대원교, 쯤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할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롱단아트 갤러리, 나트랑대성당, 야시장, 세일링 클럽, 훈춘, 포나가르 사원, 아이 리조트 스파, 달랏 야시장, 달랏대성당, 바오다이 1 궁전, 린푸옥 사원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하제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촌, 야류해양 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85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월드, 샌더스 웨이 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라이언공원, 차이타운, 센트사섬, 실로소버티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p>파타고니아 1/14-1/24 10박11일 \$6790+항공 신비의 인도 1/28-2/9 12박13일 \$3390+항공 코스타리카 2/4-2/8 4박5일 \$1990(항공포함) 호주&뉴질랜드 2/12-2/23 11박12일 \$3790+항공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2/20-3/1 9박10일 \$3590+항공 아프리카&두바이 2/20-3/5 13박14일 \$9850+항공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3/17-3/29 12박13일 \$5490+항공 브라질/아르헨티나 3/17-3/24 7박8일 \$3190+항공 페루 일주 3/23-3/29 6박7일 \$2990+항공</p>	<p>고품격 고국일주 1차 3/25-4/4 10박11일 \$2990+항공 볼방학 특선 남프랑스 4/14-4/20 6박7일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 대강양배 4/15-4/25 10박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3-5/3 10박11일 \$3590+항공 정통 동유럽 4/30-5/8 8박9일 \$33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30-5/13 13박14일 \$45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5/6-5/16 10박11일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5/7-5/13 6박7일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5/13-5/23 10박11일 \$3390+항공</p>	<p>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아이슬란드 일주 6/3-6/11 8박9일 \$56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어&한국어)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특기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p>	<p>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7/1-7/4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특기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8일 \$2190(항공포함)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p>	<p>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10/9-10/8 8박9일 \$33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7-10/13 6박7일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튀르키예 섬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30 9박10일 \$2290+항공</p>	<p>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7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사막)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아태리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p>
---	---	--	---	--	---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로맨틱시티 겨울 낭만 캐나다

뉴욕/나이아가라 2박3일 \$650
대자연의 아름다운 설경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라이프 스페셜 특선(옵션)

뉴욕 1박 2일 \$399
워싱턴시내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199(주말)

월 무조건 출발 (은, 사전확인필요)

퀘벡 눈꽃 축제 2/10-2/13 3박 4일 \$950

· 아이스호텔(옵션)
· 얼음궁전
· 눈조각 공원
· 퀘벡의 다양한 이벤트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8박 9일 \$1500+항공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옌스미티 5박 6일 \$9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캐나다 특기 4박 5일 \$1190+항공

월 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AN. 9th - JAN. 16th, 2025

HELLO!

Colored Mini Butane Gas Stove
감성 미니 가스렌지

10.4 x 8 x 4.8 IN/EA

~~\$39.99~~

\$2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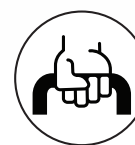


TANGERINE

BLUEBERRY



바람에 강한
 고효율 내연식 화구
 High-efficiency Internal
 Combustion Burner



이동과 보관이 편리한
 손잡이형 케이스포함
 Portable Case for Convenient
 Transport and Storage



Cooked Shrimp
숙새우

1 LB + 12 OZ

\$6.99

26/30 SIZE

좋아할지 몰라서
 '새우살'
 덤으로 넣었어!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anuary 9,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 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새해엔 우리집 리모델링 해볼까

본전뽑는 리모델링 이렇게

최근 많은 홈오너들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다. 현재 하락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비싼 집값으로 인해 집 판매보다는 거주하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며 "새해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다면 투자 대비 수익률(ROI)이 높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향후 매매 시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투자 대비 수익률(ROI)이 가장 높은 리모델링 항목과 그 비용을 알아봤다.

차고문 교체 ROI 102%로 가장 커 외벽, 현관문 교체 집값 상승에 도움

▶**차고문**
차고문 교체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리모델링으로 꼽힌다. 교체 비용은 평균 4302달러지만 리모델링 후 4418달러의 집 가치를 더해 ROI는 102.7%로 나타났다. 투자 대비 회수율뿐만 아니라 오래된 차고문을 교체하면 집 전체가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안 기능도 강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 최근 차고문은 내구성이 높은 강철이나 알루미늄 소재가 인기인데 이는 유지, 보수가 용이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전자동 차고문이나 스마트 보안 기능까지 추가하면 주택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차고문 교체는 집 매매 시 투자 대비 회수율이 좋은 대표적인 리모델링 항목"이라며 "특히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딩(Vinyl Siding)으로 마감돼 있는데 마모가 심하거나 낡았다면 이를 교체하는 것도 집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 인조 석재 비니어의 경우 교체 비용이 평균 1만925달러 정도 드는데 집 가치는 1만1177달러가 올라 투자회수율이 102.3%에 이른다. 바이닐 사이딩의 투자회수율은 94.7%로 투자 대비 집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을 주므로 만약 외벽이 낡았다면 교체를 고려해 볼만하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새 외벽만으로도 예비 바이어들은 주택이 고급스럽다고 느낀다"며 "따라서 바이어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길 원한다면 외벽 업그레이드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현관문**
노후된 목재 현관문을 강철 소재 현관문으로 교체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철 소재 현관문은 교체 시 평균 2214달러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후 집 가치가 약 2235달러 정도 높아져 ROI가 100.9%다. 강철 현관문은 내구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며

▶**외벽 비니아**
만약 주택 외벽이 천연 또는 인조 석재 비니아(Stone Veneer)나 바이닐 사



향후 매매를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차고문, 창문, 현관문 등을 교체하면 투자 대비 회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nsplash.com 캡처]

양한 색상과 디자인 옵션으로 현재 주택 외관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외부 충격에도 강해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방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주방**
주방은 소규모 리모델링만으로도 큰 효과를 주는 항목 중 하나다. 주방 리모델링 평균 비용은 약 2만6790달러, 투자 대비 85.7%의 ROI를 올려 집 가치를 약 2만2963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 리모델링 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는 캐비닛 문 교체, 카운터탑 업그레이드, 최신 가전제품 설치 등인데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방은 예비 바이어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어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뒷마당 데크**
뒷마당이나 패티오에 목재 데크를 설치해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확대하면 집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고급 목재를 사용하면 뒷마당이나 패티오가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것은 물론 내구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예비 바이어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다. 목재 데크 평균 설치 비용은 약 1만9248달러 정도로 이후 약 1만4614달러의 집 가치를 더해 ROI는 75.6% 정도다. 특히 남가주에서 목재 데크는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어 집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목재 데크는 외관과 기능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거주자들에게 투자 대비 높은 만족도를 준다"고 말했다.

▶**4면 '새해 리모델링'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버지니아 맥클린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모두 꾸며져있는자리 5000 SF	제과점 자리 메릴랜드 힐리지파크 제과점 자리 3000 SF	Beer and Wine Shop VA 일링턴, 35만불, 주1만8천불수입 2400 SF, 렌트 \$7200, 조건부임대계약
자동차 메카닉샵 버지니아 페어팩스 자동차 메카닉샵 운영할수있음 판매가 10만불, 월5만매출, 차고3개	리커 워싱턴 디피,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MD 롱고메리카운티,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조건부임대계약
컴퓨터 수리점 버지니아 에쉬번 데이터센터주변, 10만불 연매출 20만, 정비와 인벤토리 포함	K- HOT DOG 집 버지니아주 포토맥빌, 인기 많은 집, 25만불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창고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창고 임대 3900 SF, 로딩덕 있음	스시 식당 메릴랜드주 락빌 좋은 자리 5000 SF	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버지니아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피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저평가 코스피 '숨은 밸류' ... 최근 한달 5% 뚝 ETF 정체

한국 증시는 여러 악재에 맞닥뜨려 있다. 국내 정치 불안과 경기 둔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각종 불확실성에 증권사들도 상반기엔반등이 쉽지 않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내놨다. 그래도 지난 3일 국내 증시 양대 시장이 모처럼 기분 좋게 올라 코스피는 2440선을, 코스닥 지수는 700선을 회복해 기대감을 갖게 했다. 과연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마땅한 동력이 있을까? 증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믿을 건 상장사 본연의 경쟁력이다. 불투명한 시계 속에 출발하는 2025년, 이제 1년을 맞는 정부의 '밸류업(Value-Up, 기업 가치제고) 프로그램'에 주목해야 이득이다.



그래픽=김호준

새해 첫 증시 개장일인 지난 2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주요국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올해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대표기업들이 참여해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밸류업은 자본시장의 ‘큰 손’인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정책이다.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정치권에서조차 밸류업 정책의 취지와 제도 정착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02개사,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41%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밸류업 본공시가 그 이전 6개월을 합친 것보다 많아 주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기업들도 쇠신의 ‘돌파구’로 밸류업 정책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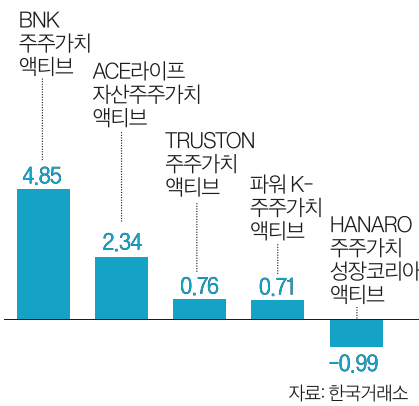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게다가 한국 내 주식은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다.

싼 가격은 매력적인 요소이며, 밸류업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저가 매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쉬지 않고 오른 미국 주식에 대한 피로감도 점점 쌓이고 있다.

밸류업은 말 그대로 투자 대상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그 핵심 결과물이 ‘코리아밸류업지수(밸류업지수)’다. 밸류업지수 수익률은 지난해 9월 24일 발표된 뒤 올해 1월 3일까지 -2.4%로 같은 기간 -5.8%를 기록한 코스피를 웃돌았다. 밸류업지수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4일 상장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양호하다. 특히 지난해 내내 한국 증시가 부진했고, 게임 사재와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극도로 심화한 것을 감안하면 밸류업 ETF 성적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19일~12월 19일 수익률을 보면 11개 ETF가 코스피(-1.46%) 상승률보다 높았다. ‘KoAct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수익률이 2.55%로 가장 높았다. ‘TRUSTON코리아밸류업액티브’(0.47%)를 비롯한 5개 상품도 비록 미미하지만 수익을 냈다.

주주 가치 ETF 최근 한달 수익률

단위: %, 11월19일~12월19일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출시일(11월 4일)을 기준으로 지난 12월 16일까지의 수익률도 12개 ETF 모두 코스피보다는 나은 성과를 냈다. 대신증권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KoAct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은 3.8%를 기록했다. ‘KOFSE코리아밸류업’(2.3%), ‘ACE코리아밸류업’(2.3%), ‘SOL코리아밸류업TR’(2.1%), ‘RISE코리아밸류업’(2%), ‘KODEX코리아밸류업’(2%)은 코스피 대비 2%대의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

리스크)로 밸류업 정책 동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개별 기업이 내놓은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들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2개의 ETF 중 9개는 패시브(passive) ETF다. 기초자산인 코리아밸류업지수를 그대로 따라간다. 나머지 3개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추가 종목들을 넣어 기초 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active) ETF다.

패시브 ETF들의 구성 종목은 모두 같다. 지난 12월 20일 기준 상위 5개 구성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현대차·셀트리온·기아 순이고 비중도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수익률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총보수는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TIGER코리아밸류업’과 ‘RISE코리아밸류업’, ‘KODEX코리아밸류업’의 총보수가 0.008%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SOL코리아밸류업 TR’의 경우 유

일하게 배당 채투자 상품이다. 이 상품을 운용하는 신한자산운용 측은 “코리아밸류업 지수의 배당수익률은 2% 수준으로 월배당 상품으로는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다”며 “배당 채투자를 통한 ‘스노우볼 효과’로 총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액티브 ETF의 경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운용하는 만큼 패시브 ETF와 상품 구성이 다르다. ‘KoAct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경우 처음엔 없었지만 앞으로 밸류업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종목을 미리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KB금융·KT·하나금융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종목은 실제 최근 밸류업지수에 신규 편입됐다. ‘KoAct코리아밸류업액티브’는 네이버·티웨이항공·감성코퍼레이션 등 밸류업지수 미포함 종목도 구성 종목에 포함했다.

포트폴리오 상위에 있는 종목 역시 액티브 ETF 3개는 패시브 ETF와 차이가 있다.

하남현 기자

▶ 4면 '투자 대안'으로 이어집니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474 Hampton Hill Ct, McLean, VA	2월6일 마켓에 나올 예정. 역할전에서 가장 인기있고,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단지. Coming Soon 상태에서도 오피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나, 정식으로 마켓에 올릴 예정. 3년 전 약 13만불 이상 들어 집 Renovation 했음
1002 Salt Meadows, McLean, VA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완료. 1월6일 세팅으로 예정. 역시 신리가 중요함
McLean, VA	투자용 집이 나오면 소개해 달라고 한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좋은 집이 나와 소개했더니 바로 구입. 1월3일 세팅으로 예정. 세팅후까지 마자 국제가구 때문 나오는 주재원 장기렌트 입주 예정
Fairfax, VA	위에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소개. 4명의 경쟁을 뚫고 득템. 이기는 오피 자산있음
McLean, VA	계약 후 10일 이내 세팅으로 완료. 현재 3년 렌트(\$4,250) 렌트하고 싶 투자가. 매달 25만원 기간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사업제 매매: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공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를 할. 투자자 집 살 때 다른 에이전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주소	기간	세입자
887* Ashgrove House Ln, Vienna, VA	1+1년	새로 이민 오는 가족
183* Clachan Ct, Vienna, VA	3년	주재원
979*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원
966*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타주에서 오는 교민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McLean, VA	3년	주재원
585* Rock Forest Ct, Centreville, VA	18개월	새로 이민 오는 가족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가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안미과학재단 1층)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민법 전문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돈이 걸려들게 하라, 새해에 유망한 'W·E·B'

(풍력·엔터·바이오)



한국내 대표 펀드매니저 3인은 "한국 증시에 가격 매력 생긴 만큼 내년엔 실적개선을 기준 삼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박진호 NH아문디자산운용 주식부부장,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 이한영 보고펀드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장진영 기자

'트럼프 2기'가 한층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에 더해 의회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해 강도높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까지 겹쳐져 불안한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만큼 '싼' 주식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긴장감이 맴도는 연말연시, 중앙일보가 한국내 내로라하는 투자 전문가로부터 위기 속 기회를 찾아 나섰다. 연가금 대표 매니저인 박진호 NH아문디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주식운용부부장), 수퍼개미 출신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 롱바이어스드(주식매수 비중 우위) 전략의 대표 매니저로 꼽히는 이한영 보고펀드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이 함께했다.

3명의 펀드매니저 모두 "내년은 철저한 종목 장세이며, 지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 한국 증시 전반의 강세를 기대하기보다 개별 기업의 호재와 주가 상승 계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

박진호: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다. 각 분야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정책 유사성이 검증된 인사들을 신속하게 지명하고, 그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취임하자마자 경제와 안보는 물론 전 영역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장 선명하게 예고된 부분이 관세전쟁이다.

백지윤: 공화당 행정부·입법부를 장악한 만큼 트럼프 공약 이행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당선 뒤 시장에는 과도한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반영돼 지금은 가치의 미스프라이싱(mis-pricing, 시장이 현재 가격을 잘

못 평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은 오해를 정확히 진단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이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주를 눈여겨보고 있다.

-자동차는 관세의 대표 피해 섹터로 꼽히는 데.

이한영: 주식으로서 자동차 섹터는 선호하지 않는다. 내년 한국내 자동차 기업 전체 매출 성장률은 정체될 것 같다. 내연기관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기차 역시 가격 경쟁에 불이 붙었다. 현재 한국내 전기차는 포지션이 애매하다. 아예 싹 낫고, 아주 혁신적이지도 않다. 미국발 관세와 별개로 성장에 대한 피크아웃(고점) 논란이 있는 섹터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내년에 이익이 턴어라운드(개선)하는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백지윤: 통상 금리 인하 국면은 거액

의 투자금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쪽 업황이 개선될 시기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RA 폐지는 어려울 거다. IRA 보조금 수령 규모가 큰 주들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기 때문이다. 현재 씨에스원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주가는 보조금 폐지를 가정한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라 가격이 매력적인 상황이라 본다.

-2023년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2차전지는 내년엔 좀 나아질까.

이한영: 지금 실적을 가장 신중하게 봐야 할 게 2차전지다. 2025년 2차전지 이익추정치는 '신규 생산계획(Q)×가격(P)'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익이 그만큼 나올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한다. 전기차도 안 팔리고, 2차전지 자체도 어렵고, IRA 보조금도 유동적이고 이래저래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다. 저가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싹나.

박진호: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 바닥권에는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추세적으로 반등할 거라 보지는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빠르게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HBM 1a(4세대)에서 어려웠는데 1c(6세대)에서 잘할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삼성 전자는 부동산 같은 존재였다. 무조건 한 번은 오르는, 언젠가 돈을 벌게 해주는 주식이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최근 10년 내내 매출이 정체됐다. 여기에 1등 프리미엄마저 주지 못하는 상황이 과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한영: 내년엔 중국 경제가 좋아야 삼성전자가 잘될 수 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먹혀야 전반적으로 반도체 재고 문제가 나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한 성(省)에서 핸드폰 보조금 지급안이 나왔는데, 이런 정책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

-한국내 반도체주 중 한 곳에 투자한다면.

백지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TSMC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선호한다. 엔비디아가 AI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파트너로는 TSMC, HBM 파트너로는 SK하이닉스가 계속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면에서도 하이닉스가 HBM3E(5세대) 16단까지 제품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경쟁자가 될 수 있고, 범용 시장(레거시 반도체)이 살아날 경우 반도체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박진호: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해 보인다.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HBM 공급사 역할을 하고 있고, 차세대 제품에도 모두 대응 중이다. 엔비디아 제품은 1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의 주력 공급사(First vender)가 아니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차세대 제품의 주력 공급사가 되어야만 많은 생산량, 높은 평균판매단가(ASP), 높은 이익(마진)을 누릴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트럼프 수혜주는 어디가 될까. 2025년에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나.

이한영: 한국에선 미국에 줄을 잘 선 '베스트 인 클래스(Best-in-Class, 계열 내 최고)' 제조업을 사면 된다고 본다. 올해 좋았던 방산(방위산업)과 전력기기 등이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 수주와 이익이 높아지면 번갈아 오르는 종목장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거다. 개인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때, 연간 톱픽(최선호주)을 정해 놓고 운용한다. 올해가 SK하이닉스였다면 내년에는 '셀트리온'을 꼽고 있다. 시장은 '집펄트라(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하나만 보고 있지만, 매출액 1000억원을 버는 다른 제품이 많아진 만큼 더 좋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내년엔 호실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할 섹터의 대표주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김연주 기자

>> 6면 '한국증시'로 이어집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MOVE with 김경아 !!”

저의 전문 노하우로 집을 잘 팔고, 잘 사드리겠습니다.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4A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집값 상반기 약세, 하반기엔 상승… 전월세 가격은 오를 듯”

2025년 한국 부동산 전망

하반기 갈수록 주택공급 우려 커져 강남 3구 등 서울 핵심지 강세 지속 최대 변수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처럼 상반기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집값 상승 여력이 줄어들, 지난해 같은 수도권 급등세(‘상저하고’)보다는 ‘상저하중’에 가까운 집값 흐름을 보인다는 예상이 많다.

중앙일보가 부동산 학계·연구기관·금융권·민간시장조사기관 등 전문가 8인에게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올해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단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기준금리 인하가 서서히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하반기에는 집값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집값 상승 폭을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상하반기 양극화 이어질 듯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2026년) 입주·분양물량 감소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전세가격이 상승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지난해 수준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여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봤다. 윤지혜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부동산 매물정보

전문가들이 보는 새해 부동산 시장 *가나다순

	집값	임대차	내 집 마련 시기는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서울 상승, 경기·인천 약보합, 지방 하락	서울·수도권 강세	1,2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 상승, 경기·인천 약보합, 지방 하락	서울 상승, 경기·인천 하락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 상품은 무조건 청약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경제성장 둔화, 정치적 불안은 집값 하방 요인	전월세 주거비 부담 가중 예상	상반기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주택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수도권 5% 이상, 지방 3% 상승	서울·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	대출 어려움 있다면 1,2월 눈여겨보아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강남3구·용산 등 핵심지와 외곽 지역간 양극화 심화	서울, 수도권 주요지역 위주 강세	상반기
윤지혜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	서울·수도권 5~6% 상승, 지방 1~2% 강보합	하반기 갈수록 전월세 상승	1분기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 1.7%, 수도권 0.8% 상승, 지방 0.5% 하락	공급 부족이 전월세 가격 상승 견인	서울·수도권 지역이라면 매수 추천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	경기둔화 우려로 지난해만큼 못 올라. 상저하중	수도권 위주 상승, 지방 약세	수도권 집중하되 급할 건 없음

(월세)
트리저움
110.53㎡ <33>
[남향]
올림픽
1억/380

(전세)
[지역]

5~6%가량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한강변 아파트 등 이른바 상급지 아파트 단지는 올해도 강세를 펼칠 것이라 예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뚝뚝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지속되고, 대출규제로 구매력 있는 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상급지 아파트는 오르겠지만 외곽지역은 하락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하·공급 부족 등이 하반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경기 침체가 이 상승 여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왔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다.

경기 둔화 땀 상승여력 제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

위원은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떨어지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올해처럼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도 “올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등 가계대출 규제가 여전히 상수로 놓여 있다”며 “하반기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올해 만큼 급등하긴 어려워 ‘상저하중’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집값 흐름에 대한 상승·하방 의견이 다소 나뉘었지만 전세시장은 작년보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는 물론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 공급이 전년 대비 30%가량 줄어든다”며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지혜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강화할 경우 급격한 월세화로 주

거비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상반기 노려라’

올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가장 큰 변수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대부분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꼽았다. 지난해 8월까지 치솟던 수도권 집값이 9월 대출규제 이후 상승세가 확 꺾일 만큼 위력을 발휘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여러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담대 금리 같은 금융 변수가 주택 가격 변화에 60%가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단핵 정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관련(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이란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팀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국내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며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잘 마련되지 못하면 경기 둔화 우려로 매매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1분기 또는 상반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답변이 많았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금이 부족할 경우 월세에 거주하며 계약금, 중도금용 현금을 확보한 상태로 관심 매물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에 대한 “상급지는 한번 오르면 급세 오르기 때문에 상반기 내로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좋다”며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면 내 집도 싸게 팔아야 하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정·김원 기자

▶ 1번 ‘새해 리모델링’에서 이어집니다

▶ 창문

창문이 노후했다면 교체를 고려해 볼 만하다. 창문 틀은 소재에 따라 바이닐(vinyl)과 목재 소재가 있는데 바이닐 창문은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유지보수도 용이해 홀오너들이 선호하는 소재다. 교체 비용은 평균 2만달러로 ROI는 68.5% 정도다. 목재 창문의 경우는 바이닐 소재보다 비용은 더 들지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 비용은 평균 약 2만4376달러로 투자회수율은 61.2% 정도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목재 창문 설치 비용은 바이닐보다 비싸지만 기능성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고급 리모델링 옵션”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바이닐 창문은 색상과 디자인 옵션이 다양해 외관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번 ‘투자 대안’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2월 20일 기준 ‘KoAct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상위 5개 종목은 SK하이닉스·현대차·삼성전자·HD현대일렉트릭·기아로 구성됐다. ‘TRUSTON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상위 5개 종목은 현대차2우B·KB금융·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카드, ‘TIMEFOLIO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상위 5개 종목은 SK하이닉스·기아·현대차·삼양식품·삼성전자다. 주주 가치 개선은 증시에서 대세가 됐다. 한국내 증시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들을 모아 투자하는 ETF가 여럿 상장돼 있다. 이들 상품도 넓은 의미에서 ‘밸류업 ETF’로 분류할 수 있다.

‘BNK주주 가치액티브’는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FnGuide)의 주주 가치 지수를 기초지수로 둔다. BNK자산운용 측은 “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한 주주 수익률 상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우리금융지주·메리츠금융지주·KT&G다. ‘ACE라이프자산주주 가치액티브’도 에프앤가이드 주주 가치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고 주주 가치 제고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투자한다. 오리온·DN오토토티브·기아·HD현대건설기계·현대차2우B를 가장 많이 담았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한국 증시에서는 밸류업 혹은 주주 가치 제고 기업에 관심을 두어야 한

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엄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밸류업 관련 기업에 관심이 많은 분위기”라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권했다. 다만 단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 제고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배당·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주주에게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금 LS증권 연구원은 “정치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밸류업 정책은 일관된 모습인 만큼 정책의 큰 방향성은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MLS #: 2425871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융자 가능한 주

- * 버지니아
- * 메릴랜드
- * 뉴저지
- * 펜실베이니아
- * 조지아
- * 웨스트 버지니아
- * 노스 캐롤라이나
- * 사우스 캐롤라이나
- * 델라웨어
- * 알라바마
- * 플로리다
- * 테네시
- * 미시간
- * 캘리포니아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월 **HOT** 리스팅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5

\$59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2, 차고1

\$75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59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 차고2
한인마트에서 5분거리

\$625,000

주택 매매 / SALE



애난데일
새 타운홈
방4, 화3.5, 차고2

\$98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825,000

임대

비엔나 겔로스 로드 콘도 방2, 화2, 차고2

\$2,550

임대 주택, 상업용 건물 관리 해드립니다.

세입자와 분쟁처리 / HOA 와 문제 처리

페어팩스 시티 + DC + MD 카운티 임대 면허증 + 인스펙션 통과해드립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준리
콜드웰 벙커
베스트 부동산

미국 교포들에게 한국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교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러 자주 방문하는 분들은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있어 편히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이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저렴한 오피스텔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 한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6개월은 미국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 머물며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다.

몇일 전 한국 신촌에 위치한 대명 건설의 프리미엄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를 직접 답사했다. 지금의 시기적 여건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치고 있고 달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교포들에게 한국에 집을 마련할 최적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했다.

신촌 에르노 플레이스는 신촌의 중심지, 초초역 세권이라 불리는 최고의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신촌은 주요 명문 대학들이 위치한 대학가의 중심지로,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지역이다.

이러한 중심에 자리 잡은 에르노 플레이스는 최상의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신촌 로터리 전철 2호선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으며, 지하철과 전철역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민약 연결이 된다면 정말 편리할 것이다.

신촌 '에르노 플레이스'

초초역세권으로 최상 주거환경 제공
달러 강세로 한국 부동산 구입 적기

가격은 현재 달러 시세로 39만5000달러에서 106만5000달러까지 다양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2년 반 만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며, 계약금 20%를 두 번 나누어 지불하고, 중도금 50%를 다섯 번에 걸쳐 나누어 지불한 뒤, 준공 시 30%를 지불하게 된다.

중도금 50%는 용자가 가능하다. 청약금은 1000달러이며, 도중에 포기할 경우 100% 리턴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진행 중에도 전매가 가능하다.

에르노 플레이스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1층까지 구성되며, 9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10층부터는 오피스텔이 위치할 예정이다.

특히 15층 이상 유닛에서는 도심 속 시티 뷰를 감상할 수 있다. 144개의 유닛은 복층과 단층 구조로, 14평에서 34평까지 다양한 크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에서 보기 드문 각 유닛에 테라스가 있다는 점이다. 테라스가 있어 환기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넓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특히 대명건설은 투자자들에게 체계적인 임대 관리, 입주자 관리, 임대 수익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소유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신촌의 활기찬 분위기와 편리한 위치는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는 향후 좋은 임대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렉스 유
CBRE Korean
Desk 대표

부동산시장 기술 산업의 영향

AI 도입 일자리 영향 오피스 수요 변화
기존 업무 방식 혁신, 부동산 시장 재편

부동산 시장은 항상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인공지능(AI)의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 산업의 성장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는 다른 오피스 사용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직종은 75% 성장했으며, 이는 생명과학(54%) 및 전체 직업 성장률(17%)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벤처 캐피탈(VC) 자금의 증가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AI 스타트업에 226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AI 관련 자금 조달은 전체 VC 자금의 35%를 차지하며, 이는 2023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AI 도입과 오피스 수요 변화

AI는 기술 산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의 도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존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며, 오피스 수요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인 지적 활동을 향상해 새로운 직업 카테고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

공간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도입은 일부 직업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포레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미국의 24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1.5%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

AI는 새로운 직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오피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업의 감소와 원격 근무의 확산은 오피스 공간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기술 산업의 성장과 AI의 도입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술 산업이 집중된 주요 시장에서는 오피스 임대 활동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큼니다.

▶결론

기술 산업의 성장과 AI의 도입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산업의 성장과 AI의 발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 시 에이전트 역할

아파트 임대와 주택 임대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아파트 임대의 경우, 한 매니지먼트 회사가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임차인을 일괄 관리한다. 반면, 일반 주택의 임대는 한 집주인과 한 명의 임차인, 또는 한 가족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수많은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약 시 여러 항목이 자연스럽게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거 조치를 하기도 하고, 계약 완료 후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자동으로 차감하는 등 강제 조항이 많다.

그러나 일반 주택 임대와 달리, 집주인은 한 가족과 계약을 맺어 그 집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하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집을 깨끗하게 잘 사용할 임차인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강제 조항을 넣어 딱딱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 임차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두는 것은 임차인이 그 집을 내 집처럼 깔끔하게 사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임차인과 집주인의 관계를 처음부터 부드럽게 만드는 중간 역할을 에이전트가 담당해야 한다. 가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집주인이 "왜 아파트처럼 까다롭게 계약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식의 엄격함을 따르지 않고 너무 한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규율에 따라 진행하는 미국식 방식이 당연히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양보를

통해 중요한 부분만 정확히 짚어가며 계약 당사자 양측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국적인 사고방식 수 있지만, 이러한 융통성은 미국식 엄격함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고르고 계약을 맺으며 입주를 지원하고, 수시로 집을 관리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선, 에이전트는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집을 방문해 내부를 살펴보고 조언을 한 뒤 리스팅 계약을 맺는다. 집 내부 및 외부 사진을 보통 20여장 촬영해 MLS(에이전트 리스팅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다른 에이전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신문과 지역 잡지 등에 광고를 올리고, 플라이어를 배포하며 해당 사실을 웹사이트에도 게시해 알린다.

임차인이 모집되면 집을 안내하고 해당 집, 주변 지역, 학군 등에 관해 설

명한다. 임차인이 임대를 신청하면 크레딧 조사, 재산, 직장 및 월 급여, 가족 관계를 조사해 집주인에게 보고한다.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를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이후, 집주인에게 이사 준비를 요청하고 청소 상태를 확인한 뒤 집 열쇠, 공동시설 열쇠, 우편함 열쇠, 차고 리모컨 등을 2개씩 받아 입주 당일 임차인에게 전달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각종 유틸리티 전화번호를 제공해 명의 임차인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한다.

이사가 끝난 뒤 약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집 안의 각종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점검해 리포트를 작성하여 양측에 전달한다. 임대 기간 임차인의 예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제이슨 성·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3편 '한국중시'에서 이어집니다

백지훈: 트럼프 정부에서 공급망 다변화로 조선업과 전력기기 등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에 동의한다. 다만 이미 주가에 반영돼 추가로 오를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 중에 내년 이익이 성장하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소재·장비 그리고 앞서 말한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이다.

박진호: 지금은 정책의 변화가 워낙 많고 빠르게 진행돼 예측이 어려운 시기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까지는 오히려 정책 상관도가 낮은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엔터와 헬스케어 등을 꼽고 싶다.

구독 신청 : 703-281-9660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p>UNDER CONTRACT</p> <p>Marriottsville</p> <p>\$665,000 타운홈, 방3, 화4</p>	<p>SOLD</p> <p>Laurel</p> <p>\$589,000 싱글홈, 방4, 차고1, Upgraded</p>	<p>SOLD</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SOLD</p> <p>Odenton</p> <p>\$465,000 타운홈, 방3, 화3</p>	<p>SOLD in 3 Days</p> <p>Perry Hall</p> <p>\$419,000 싱글홈, 방3, 화2</p>
<p>SOLD</p> <p>Catonsville</p> <p>\$395,000 싱글홈, 방4, 화2</p>	<p>SOLD</p> <p>Elkridge</p> <p>\$515,000 타운홈, 방3, 화3</p>	<p>SOLD</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SOLD</p> <p>Jessup</p> <p>\$389,000 타운홈, 방2, 화2</p>	<p>UNDER CONTRACT</p> <p>Hanover</p> <p>\$550,000 타운홈, 방3, 화3.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Columbia</p> <p>월 \$3,100 타운홈 방5, 화4</p>	<p>Odenton</p> <p>월 \$3,000 타운홈 방4, 화4</p>	<p>COMING SOON</p> <p>Bowie</p> <p>월 \$2,800 타운홈 방3, 화2</p>	<p>COMING SOON</p> <p>Pasadena</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2.5</p>	<p>RENTED</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RENTED</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US이주투어 **아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 23-25년 새 VVIP버스 6대 운영!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도 1위!**
 ■ 서울 02-522-8686 ■ info@usajutour.com ■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원, 토렌스, 가디나, 풀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팍,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엘바인(4명이상) 등
 가족, 친구, 지인에게 추억을 선물하세요! 이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아주 항공부** 한국행 항공 아주가 답이다! 마지막으로 전화주세요! 최저가 비행기 티켓은 아주!

The Young 50
 중앙일보 50주년
 아주투어 40주년
 공동기획

40년을 아주 명품 유람

복유림 서유림 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시/복유림 2인 입체 완벽가이드 전일정/전구간
 함께해 인솔자가 고객의 니즈를 바로바로!
 언제든지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아주투어!

얼리버드 스페셜(1월 31일까지 예약자 한함)

\$700 할인 찬스! 영국일주/벨기에/네덜란드 12일 ▶4/21 \$5899 ▶ \$5199+항공료 인솔자 동행, 논스톱 왕복항공 포함, 특급호텔, 네덜란드 톨립축제 참가 등.	\$1000 할인 찬스!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5999 ▶ \$4999+항공료 ▶5/19, 6/4, 16, 7/15, 8/5, 19, 9/2
\$500 할인 찬스! 영국일주 10일 \$4899 ▶ \$4399+항공료 ▶4/21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800 할인 찬스! 북유럽 4개국 11일 \$4999 ▶ \$4199+항공료 ▶5/19, 6/4, 16, 7/15, 8/5, 19, 9/2
서유럽 11일 \$3399+항공료 7일 \$2299+항공료 ▶3/20, 4/3, 17, 5/1, 15, 6/5, 19, 7/10, 31, 8/14, 9/4, 18, 10/2, 16, 12/22	이태리일주 7일 \$1999+항공료 ▶3/24, 4/7, 21, 5/5, 19, 6/9, 23, 7/14, 8/4, 18, 9/8, 22, 10/6, 20, 12/26
튀르키예/그리스일주+산토리니 14일 \$3399+항공료 ▶4/8, 5/13, 6/3, 9/16, 10/7	튀르키예일주 10일 \$1699+항공료 ▶4/14, 5/19, 6/9, 9/22, 10/13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2699+항공료 ▶4/19, 5/8, 9/10, 10/1	스페인/포르투갈 11일 \$2299+항공료 ▶4/2, 30, 5/14, 6/4, 9/9, 23, 10/15
동유럽/발칸 13일 \$3299+항공료 ▶4/18, 5/2, 23, 6/13, 7/11, 8/1, 9/4, 18, 10/2, 16	시칠리아/몰타 10일 \$3399+항공료 ▶3/12, 3/12, 3/12
동유럽일주 7일 \$2099+항공료	스위스일주 7일 \$4399+항공료 ▶4/29
크로아티아/발칸일주 9일 \$2599+항공료 ▶4/22, 5/6, 27, 6/17, 7/15, 8/5, 9/8, 22, 10/6, 20	남프랑스 8일 \$3999+항공료 ▶4/21
	영국+스위스일주 15일 \$8999+항공료 ▶4/21
	코카서스 3국 11일 \$3499+항공료 ▶4/17 아르메니아/조지아/아르메니아

추억이 달라지는 여행!
US이주투어
 CST 2052210-10
1-800-933-3011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본 상품은 LA출발 가격입니다. 다른 도시의 출발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모국 관광
 1. 27인승 VVIP 버스 2. 초특급 5 star 호텔
 3. 전국 각지 맛집 탐방 4.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지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모국일주 10일 ▶수 \$2199+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수 \$2499+항공료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전통성당, 담양 죽녹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 낙안읍성, 여수 오동도 & 남만포차 거리, 축석루, 통영 중앙시장, 외도, 제주 2박(통갈치구이, 흑돼지구이 특식 2회), 국제시장, 울산 웅기마을, 경주 불국사, 동궁과월지, 안동 하회마을,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설악산 국립공원, 신홍사, 권금성 케이블카

서해/제주 3일 ▶일 \$499+항공료
서해/제주 7일 ▶수 \$1499+항공료
서해/남해 5일 ▶수 \$999+항공료
동해/제주 6일 ▶일 \$1299+항공료

2025 **벚꽃일주 7일 ▶3/26, 4/2 \$1599+항공료**
 경북권 한복 입고 관광, 청와대, 롯데 타워 관광, 민속촌 관광, 산청 한방 체험남해 벚꽃 관광

일본일주 7일 ▶3/18, 25 \$1899+항공료
 신간선 2회 온천호텔 3박, 호텔식사 및 특급식사, 인천 공항에서부터 가이드 동행

베트남/캄보디아 14일 ▶3/26, 4/2 \$27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항공료
 ▶1/17, 31, 2/14, 28, 3/7, 21, 4/2, 16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티툼섬, 씨엠립, 앙코르 톤, 앙코르왓, 톤 레이크 등

정통미서부
 라스베가스 2박/트레이즈 아일랜드 호텔
아주 단독! 32인승 25년 새 VVIP 버스!
6대의 23-25년형 새 VVIP 버스로 편안하게 모입니다!
아주 단독! 스피어는 아주와 함께합니다!
 라스베가스 스피어 한인 컨트랙은 아주 뿐!
아주 단독!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로브 국립공원과 컨트랙으로 아주만 방문합니다!

미서부 안전일주 7일 ▶월 \$1469+항공료
 2개 상품이 하나로! 더 착한 가격 & 알찬 일정! 그랜드캐년, 브라이스, 자이언, 앤텔롭캐년, 라스베가스,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벡 등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앤텔롭캐년 4일 ▶월 \$809+항공료
아주 단독! 페이지 햄트 숙박! 라스베가스 조인
 미서부 투어의 핵심 4대캐년을 한번에!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월 \$889+항공료
 레다슨, 메리엇 특급호텔 2박!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벡 등

그랜드 씨클+세도나 7일 ▶월 \$1339+항공료
 라스베가스 조인

미동부
 뉴욕맨해튼, 워싱턴DC,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 퀘벡, 몬트리올, 우드버리 등)
5일 ▶수, 토 \$1150+항공료 **8일 ▶수, 토 \$1700+항공료**
 울드퀘벡 숙박

캐나다
 아주투어에서 떠나는 럭셔리하고 품격있는 캐나다 여행을 경험하세요!
캐나다동부 6일 ▶목 \$1399+항공료 **캐나다록키 6일 ▶월 \$1199+항공료**

아주 크루즈
 얼리버드 할인예약!! 크루즈의 특성상 오래되고 신뢰 할 수 있는 회사가 운영해야 안심이 됩니다! 크루즈도 아주가 정답입니다!

아이슬랜드/그린랜드 크루즈+레이카비크 14일 \$5350 ▶8/20(1월31일까지 예약시) \$5799 ▶6/10
 아이슬랜드 레이카비크,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듀피보구르, 아퀴레이지, 이사포드르, 그린랜드 크루트, 파미우드, 누크 크루즈 + 블루리본, 골드서클관광 포함

알래스카 8일 \$1499+항공료
 ▶5/24, 6/7, 28, 7/12, 26, 8/16, 30, 9/13
 씨애틀, 주노, 스킨스퀘어, 클래식어베이, 케치칸 빅토리아 섬, 씨애틀

멕시코 크루즈 5일 ▶2/2 \$469
 롱비치 출발 가이드 동행, 세금 포함
 2020년 리노베이션한 10만톤, 승무원수 1,108명, 총탑승객수 2,984명

바하멕시코 5일 ▶4/28, 5/12 \$499 **멕시코라비에라 6일 ▶1/23, 2/25, 6/3, 7/15, 8/12, 9/9, 10/2**
롱비치 출발 롱비치, 카타리나 섬, **롱비치 출발** 롱비치, 카보 산루카스, 가이드 동행 엔세나다, **롱비치 출발** 롱비치, 카보 산루카스, 가이드 동행 엔세나다

서지중해발코니 10일 ▶3/26, 10/31 \$3099
 바르셀로나, 마르세이유, 제노바, 나폴리, 메시나, 발레타(몰타)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웨스턴카리브해 8일 ▶5/24, 6/2, 7/1, 8/1, 9/1, 10/1 \$1099+항공료
가이드 동행 포트 로드데일, 코즈멜, 로아탄, 벨리즈 시티, 마이아우알

여행 고수와 경험자들이 선택하고 추천하는 아주는 고품격 투어! 차원이 다릅니다!!

삼바 축제 + 남미일주 13일 ▶3/6 \$4999+항공료
전문 가이드 동행!
 아름다운 리오 일주, 삼바 챔피언 페레이드입장료, 이과수폭포(브라질/아르헨티나편),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마, 쿠스코, 마추피추, 나스카문양(경비항공 포함) 등.

남미일주 13일 ▶1/18, 2/8, 3/11 \$4699+항공료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1/18, 2/8, 2/23, 3/11 \$2599+항공료
페루일주 7일 ▶1/13, 2/3, 17, 3/6 \$2199+항공료
 앙카, 마추피추, 나스카
멕시코시티&중부 5일 ▶월 \$1249+항공료
우유니사막(볼리비아)+페루일주 10일 ▶1/13, 2/3, 17, 3/6 \$3899+항공료

코스타리카 6일 ▶1/13, 20, 27, 2/10, 3/10 \$1149+항공료
 세계최대의 활화산온천에서 야외 온천 때바론 온천욕, 호텔 식사, 로스라고스 천연온천호텔 2박

칸쿤 ▶ 매일출발 HYATT 오션뷰(올인크루시브) 4일 ▶월 \$1100+항공료 **5일 ▶월 \$1500+항공료** **6일 ▶월 \$1900+항공료**
로스카보스 (바하칼리피니아) ▶ 2인이상 수시 올인크루시브 4일 ▶월 \$1050+항공료 **5일 ▶월 \$1350+항공료** **6일 ▶월 \$1650+항공료**

아르헨티나 & 칠레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빙하탐사 크루즈 ▶2/13 \$11900+항공료
특급호텔 가이드 동행!
 여기를 알기엔 파타고니아를 방문 본 것! **토레스 델 파이네!** 가막히게 멋진 국립공원 **후에르토 나탈레스!** 지구의 최남단 **빙글마을 우수아이!**

칠레/빙하탐사 크루즈 10일 ▶2/13 \$8449+항공료
칠레 파타고니아 ▶2/13 \$8449+항공료

이집트/요르단 12일 ▶2/13, 3/13 \$3999+항공료
이집트일주 10일 ▶2/13, 3/13 \$3499+항공료
 특급! 나일강크루즈! 카이로 5성 힐튼숙박! 대피라미드!

동남아&일본
일본북해도 4일 ▶2/21 \$999+항공료 **베트남/다낭 4일 ▶월 \$699+항공료**
방콕/파타야 5일 ▶수시출발 \$699+항공료 **베트남/하롱베이 4일 ▶월 \$649+항공료**

하와이/마우이
와이키키 리조트 4일 ▶월 \$849+항공료 **와이키키 메리엇 4일 ▶월 \$1049+항공료** **해트 레진 와이키키 4일 ▶월 \$1149+항공료** **세라튼 와이키키 4일 ▶월 \$1299+항공료**
5일 ▶월 \$999+항공료 **5일 ▶월 \$1249+항공료** **5일 ▶월 \$1349+항공료** **5일 ▶월 \$1629+항공료**

아프리카+ UAE 두바이 ▶2/26 (마감) \$11499+항공료
아부다비 ▶10/15 (2월 20일까지) \$9999+항공료
베테랑 가이드 동행!
 1. Victoria falls 특급 호텔 2. 6성급 사파리 랫지 호텔
 3. 에어콘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 빔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이블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블카

피지 합선! 호텔 비교! 가격이 다른 품질이 다릅니다!
남태평양 A 피지/호주/뉴질랜드 ▶2/11, 3/18, 4/9 가이드 동행!
A 13일 \$3799+항공료 **B 11일 \$3299+항공료**

아주 남태평양투어가 명품인 이유?
 1. 럭셔리하고 편안한 여행 2. 최고의 만족도
 3. 항공이동으로 버스 타는 8시간 절약
 4. 최고급 식사와 맛있는 특식
 5. 반지의 제왕 촬영지 6. 지상의 천국 피지
 7. 반딧불 등롱 포함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LA출발 비수기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 1등 감독” 베트남은 상식의 시대

“1편을 능가하는 속편은 없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항서 감독님께서 남긴 업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속편의 주인공을 맡은 격이지만, 그저 베트남 축구의 발전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번(미쓰비시컵) 우승도 제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7일 국내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에 나선 김상식(49)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밝은 표정으로 “신짜오(Xin Chao-베트남 인사)”를 외쳤다. 지난 6일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2024 미쓰비시일렉트릭컵(이하 미쓰비시컵)에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끈 그는 선수단과 함께 곧바로 베트남으로 향했다. 베트남에 도착한 그는 영웅 대접을 받았다.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무패(7승 1무) 우승한 데다, 최대 라이벌 태국을 홈 앤드 어웨이로 펼쳐진 결승전에서 모두 승리(2-1, 3-2)해 반항은 더욱 컸다. 베트남이 미쓰비시컵에서 우승한 건 박항서 전 감독이 팀을 이끌던 2018년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다.

자신을 “동남아시아 1등 감독”이라고 소개한 김 감독은 “우승으로 끝났지만, 진행 과정은 거의 한 편의 드라마였다. 매 순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의 연속이라 당황했지만, 침착하고 슬기롭

게 헤쳐 가려 애썼다”고 그간의 과정을 돌아봤다. 이어 “짧은 대회 기간 네 차례나 장소를 옮겨가며 8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 팀원의 컨디션 조절이 핵심 과제였다”며 “체력과 부상은 물론, 날씨와 음식까지 신경 썼다. 베트남 선수들이 팀 정신을 앞세우며 따라와 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우승 직후 과거 전북 현대 감독 시절 성적 부진으로 마음고생 한 기억을 떠올렸다는 김 감독은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걸 이번 우승을 통해 보여드린 것 같다”며 “당시엔 힘들었지만, 이젠 전북 팬들의 ‘나가라’는 아우와 함성이 가끔 그림기도 하다”고 여유를 보였다. 우승 직후의 댄스 세리머니에 관해 김 감독은 “무게감 있는 감독, 호랑이 선생님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는데”라고 아쉬운 척하더니 “선수들이 부탁해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좋은 전 세계 1등 감독일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두 전임자(박항서-필립 트루시에)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묻는 말에 김 감독은 “박항서 감독님의 성공과 트루시에 감독님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그 중간을 어떻게 찾아내 변화를 줄지 진지



김상식 감독(오른쪽)에게서 트로피를 받아 든 필립 전 총리가 운데. (사진 베트남축구협회)

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 “트루시에 감독님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세대교체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하면 큰 대회에서 기량을 100% 발휘하기 어렵다”고 나름의 분석을 전했다.

선수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김 감독은 상대 공격수를 꽂꽂 묶어 경기장 안에서 ‘독사’로 불렸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유쾌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띄워 과거 개그 프로그램 캐릭터를 딴 ‘식사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도자가 된 후

에도 꽤 오래 ‘식사마’로 통했다. 그는 베트남에 와서 ‘사우 상(Sau Sang)’이라는 별명을 추가했다. 우리말로 ‘식 삼촌’쯤 된다. ‘사우’가 베트남어로 ‘6’인데, 김 감독 이름 끝 글자 ‘식’이 영어 ‘6(Six)’와 발음이 비슷한 데서 유래했다. ‘상’은 상대를 존칭하는 말이다. 박항서 감독을 ‘파파(아빠)’로 부르며 존경했던 베트남 팬들이 김 감독은 ‘삼촌’처럼 친근하게 여기는 모습이다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지 8개월 만에 성과를 낸 김 감독은 성공의 핵심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선수들 위주로 눈높이를 낮추고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며 “성공도 실패도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은 게 팀 분위기와 경기력의 변화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 감독에 이르기 전 관계자는 “박항서 전 감독 초기만 해도 대표선수들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 일색이었는데, 최근에는 고급 승용차로 바뀌었다”고 달라진 선수들 위상을 설명했다. 이어 “K리그의 리딩 클럽인 전북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무난히 이끈 김 감독이다 보니 베트남 선수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지훈 기자

함부르크 필하모닉엔 8명... 세계 오케스트라 빛내는 한국인

올해 한국에서 10여 개의 해외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한다. 가히 ‘오케스트라 내한’의 해다. 킬링 페트렌코(베를린 필), 구스타보 두다멜(LA필), 다니엘 하딩(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등 함께 내한하는 스타 지휘자가 화려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은 악단들의 곳곳에 포진한 한국인 단원들의 모습일 것

이다. 한국인 연주자들이 국제 대회 입상을 넘어 해외 오케스트라에 안착하고 있다. 국제 콩쿠르에서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세계 곳곳 오케스트라에 진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10월 내한하는 북독일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으로 한여진(23)을 만날 수 있다. 한여진은 2023년 이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오디션을 치러 합격했다. 만 14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최연소 합격해 유명해진 플루티스트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는 한여진에 앞선 한국인 단원들이 있었다. 2011년 입단한 제1 바이올린 단원 전하림과 제2 바이올린의 김영도다.

이처럼 각 악기 파트의 수석 단원에서 일반 단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인 단원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일례로 독일 함부르크 필하모닉에는 최근 두 젊은 관악 주자가 수석으로 입단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임용된 유채연(24) 플루트 수석, 이현준(26) 트럼펫 수석이다. 세계적 거장 쾨트나가노가 이끄는 이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조(31)가 이미 악장을 맡고 있었고 바이올린 소니아 김, 최정윤, 비올라 이상윤, 첼로 김민영, 바순 수석 김민주까지 총 8명의 한국 연주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신가영(30)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

케스트라에 제2 바이올린 차석으로 2년 전 선발돼 활동 중이다.

1743년 창단한 이 명문 오케스트라에는 제1 바이올린 조윤진, 제2 바이올린 이민아, 더블베이스 양지윤이 소속돼 있다. 또 450년 전통의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슈타츠헤펠레에는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33)부터 제2 바이올린 부악장 지상희, 제1 바이올린 양주영, 첼로 이소정-강민지와 지난해 입단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까지 6명의 한국 연주자가 있다.

세계적인 명문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악장은 수년 전에 자리잡았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은 베를린 슈타츠헤펠레에서 2018년부터 종신 악장을 맡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40)은 라디오 프랑크 필하모닉에서, 김수연(37)은 콘체르트하우스 베를린에서 악장으로 연주하고 있다. 오케스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규민(베를린 슈타츠헤펠레), 신가영(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박예람(벨기에 라모네), 이현준(함부르크필)-한여진(북독일 엘프필). [사진 금호문화재단, 스테이지원, 엘프필 홈페이지]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a.edu (213)381-3710

nothing special; 특별한 게 없다

Fred and Sharon are talking between classes ...
(프레드와 샤론이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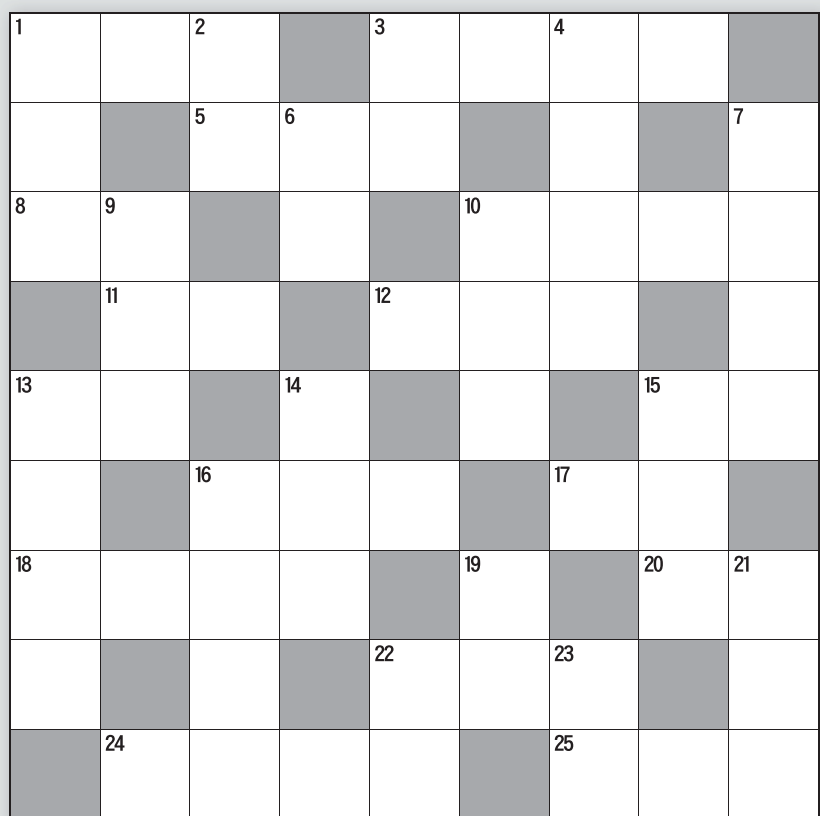
Sharon: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샤론: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Fred: I have to study for a math test all weekend.
프레드: 주말 내내 수학 시험 공부해야 돼.
Sharon: I hate math. It's very boring.
샤론: 난 수학 싫더라. 너무 지루해.
Fred: It's not so bad. It just takes a lot of time. I've got homework to do every night.
프레드: 수학이 그 정도로 나쁜 건 않아.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난 매일 저녁 숙제 해야 돼.
Sharon: Are you going to Terry's party on Saturday night?
샤론: 토요일 저녁에 테리가 여는 파티에 올 거지?
Fred: I'd like to but you know how it is. It seems like studying never ends.
프레드: 가고야 싶지만 너도 잘 알잖아. 공부하는 데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Sharon: Come on! It's Saturday night! It would be good for you to take a break.
샤론: 왜 그래! 토요일 밤이잖아! 잠시 쉬는 것도 너한테 좋을 걸.
Fred: Well maybe I can make it for a while. It's potluck, isn't it?
프레드: 글썄 잠깐 갈 수는 있겠다. 각자 음식 갖고 오는 거 맞지?
Sharon: Yeah, I think I'll make a big fruit salad.

샤론: 맞아. 난 과일 샐러드를 큰 것으로 가져갈까 봐.
기억할만한 표현
▶ take a break: 쉬다.
"He just took a ten-minute break." (그는 10분 쉬었을 뿐입니다.)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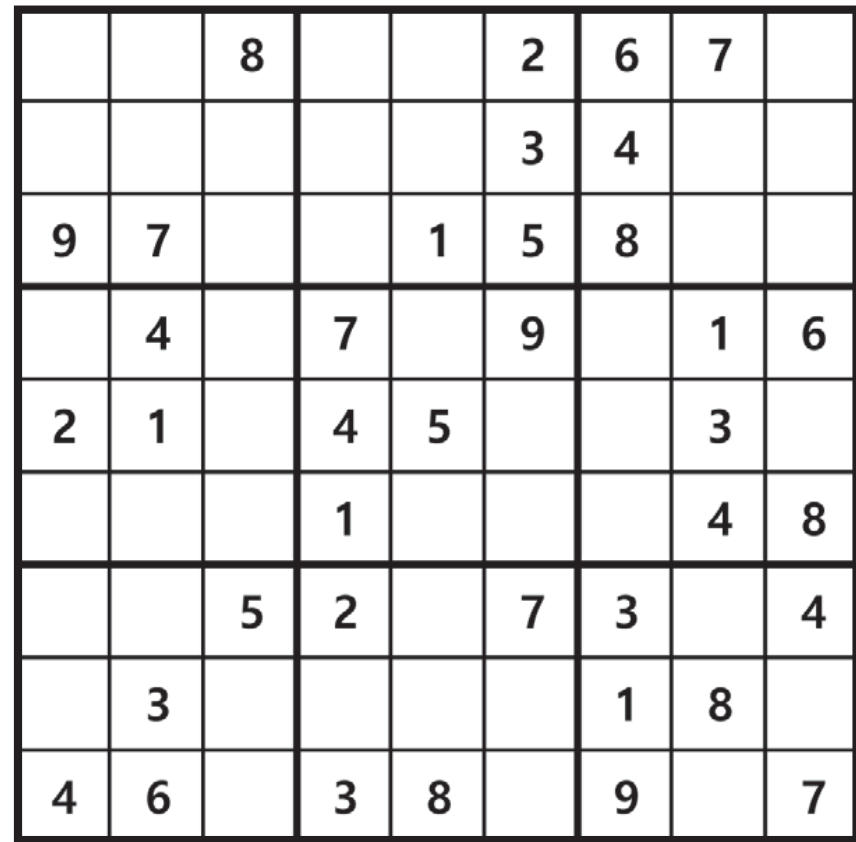
가로열쇠

(1) 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 (3) 달리기, 뛰기, 던지기를 기본으로 하는 땅 위에서의 운동 경기 (5) 어떤 일을 해 질 무렵까지 계속함. 그가 집에 도착한 것은 거의 ~해서였다 (8) 집의 위쪽을 덮어씌운 부분. 지난밤에/눈이 소오복히 왔네/~이랑/같이랑 밤이랑/추워한다고/덮어주는 이불인가 봐/그러기에/추운 겨울에만 내리지(윤동주) (10)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침.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적을 교란시켜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함. □□격□ (11) 임금의 명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아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관직. 암행 ~ (12) 물을 모아 두는 큰 못 (13) 집을 걸어서 매는 데 쓰는 줄 (15) 앞 가슴의 옷깃.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 그와 ~을 터놓고 얘기했다 (16) 흰 종이의 날장 (17) 특수한 행위를 허가하는 행정 처분. 운전 ~ (18) 정수리에 침을 놓음. 따끔한 충고나 교훈. □문□□ (20) 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 ~가 싸다(경사가 급하다) (22) 노인들만 앉도록 마련한 자리 (24) 칼로 무엇을 한 번에 쳐서 두 동강을 냄. 일 □□□ (25) 불넷과 데드 볼

세로열쇠

(1)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산호의 노리개를 고름에 차고 비취 ~에 비녀를 찌르고 있다(박경리) (2) 홍수로 인한 재해 (3) 천간의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와 지지의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를 차례로 배열해 놓은 예순 가지. 남의 말이나 행동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 떨고 자빠졌네 (4)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들.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 □천□□ (6) 겨울잠 (7)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동□□□ (9) 서로 얼굴이 매우 닮은 사람. 친척들은 나를 볼 때마다 아버지랑 ~이라고 말한다 (10)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13) 차례나 순서 따위가 잘 잡혀 한결같이 바르고 가지런함. □서□□ (14) 손에 있는 경혈에 짧은 침을 꽂아 치료하는 침술 (15) 남의 비난을 받은 만한 잘못이나 고통. ~ 없는 사이 (16)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백 일 동안 처성을 드리는 일 (19) 적군에게 사로잡힌 병사 (21) 표를 파는 창구 (22) 찹쌀·수수 등을 재료로 하는 한국 고유의 떡 (23) 대학원을 나온 사람의 학위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스페셜 SALE**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팬텀2 **펠리스2**

일시를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안마의자인가 의료가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가기가 되다!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PHANTOM Medical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견인!

5 YEAR WARRANTY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손지압 패드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강화된 안전센서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쿼다이얼
- 3단계 온열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자동 체형 인식
- 폭신한 에어백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쓱** 내 몸에 **쓱~**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6,999~~ → **\$4,999**
블랙프라이데이 마지막 세일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특가 세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흥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흥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원적외선 명품매트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흥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단 지정 대리점

월단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로 겨울을 따뜻하게~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위생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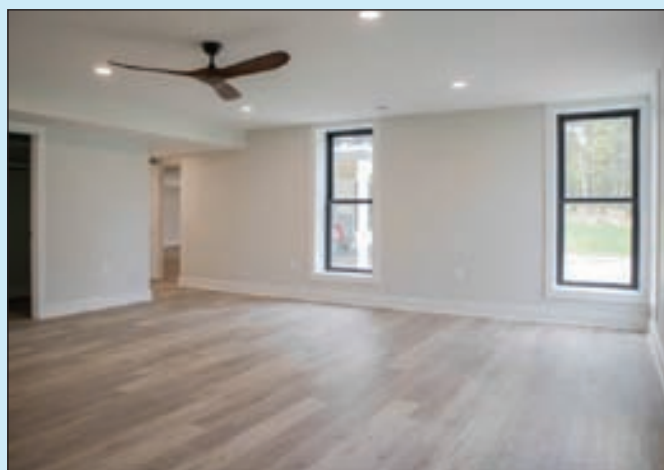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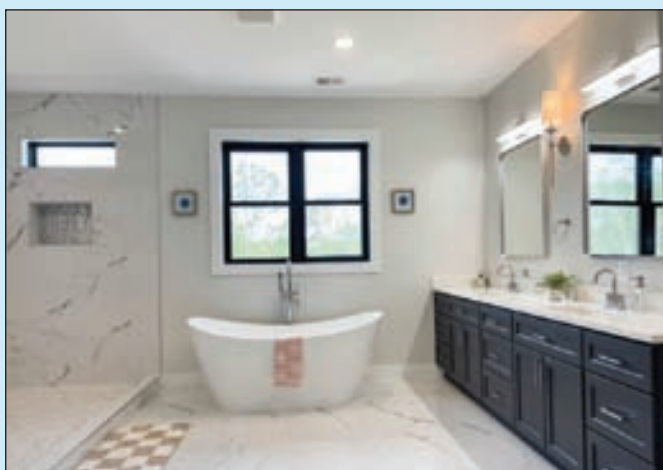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1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 핸드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K14, K18, Setting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 ◆수도꼭지 교체
- ◆싱크/디스포저
- ◆워터히터/물새는것
- ◆하수막힘/변기교체
- ◆씽폼 교체
- ◆루핑수리/거리교체
- ◆사이드 리페어/창문
- ◆데크 수리
- ◆드라이얼/페인트
-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이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받지 팔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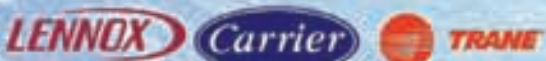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구인

아침죽&양식국

달리버리겸 주방헬퍼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라스카 식당 (907)545-5933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C&J TECH 채용 공고

▶ 회사 정보: 상호: C&J Tech Alabama 주소: 145 Plant 10 Dr, Alexander City, AL 35010 TEL: (256) 392-4291

▶ 채용 공고 내용

모집 분야	지원자격	비고
사출 기술 경력자	Plastic 사출 Process Engineer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경력 5년 이상	전 분야 미국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품질(QC) 경력자	품질 관련 업무 유경험자 사출회사 경력자 우대, 경력 3년이상 ~10년 미만	

▶ 처우 및 지원 절차
- 연봉 수준: 면접 합격자의 경력 사항을 반영하여 회사 내규에 따름
- 복리 후생: 건강보험/생명보험, 401K 지원, 비자/영주권 지원
- 지원/문의: sjshin@cnjtech.com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림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디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쁘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항흥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가력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장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중풍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 "이젠 웃을 수 있어요"

성민 산삼 한방 병원

'K-한'의 중풍 치료 대표 사례 "중풍은 못 고치는 불치병 아냐" "중풍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허가 안 움직여 말도 못 했는데 두 달 여 치료 만에 정말 많이 회복했어요."

LA 한인타운 소재 '성민 산삼 한방 병원(대표 서영수 한의학 박사)'에서 중풍 치료를 받고 있는 델휘노 고메즈 (51세)씨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 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한다. 델휘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잠 자러 침대 위에 앉았다가 갑자기 중풍 이 왔다. 911을 불러 카이저 병원으로 이송돼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6개월이 지나서야 집 근처를 지팡이 이예 의지해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고메즈 한 한인이 성민 산삼 한방 병원 명함을 건넸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델휘노 씨는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구안와사와 함께 손발 이 오그라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서영수 박사는 "중풍은 바람을 맞았 다는 뜻으로 대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 지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비유한 것 이다. 중풍은 병원에서조차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침, 2침, 3침, 4 부항, 5지압, 6교정을 통해 중풍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델휘노 씨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틀어진 목이 반듯하게 되고, 통증이 사 라졌으며, 어눌했던 발음도 또렷해졌 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균형을 잡고 빠르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했다. 서 박사는 "중풍 치료를 위해서는 어깨부터 팔 손가락 다리 등 막혀있는 마 디마디를 풀어줘야 한다. 침과 뜸을 병행해 기혈의 순환을 극대화하고 어 깨나 이삼근(영양이)에서는 혈관 내 존재하는 혈전을 뽑아내야 한다. 이어 심혈관을 치료하는 금육단과 모든 위 장병에 효과적인 도인비사단을 처방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풍은 뇌의 병변으로 기혈의 순환과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중증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보강을 통해 증상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줄이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반신 또는 한쪽 손가락이 힘이 없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거나, 종종 손 발의 저림을 느낀다면 보다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 중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의암침법과 6단계 치료를 통해 집중적인 중풍 치료를 제공하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은 LA 한인타운 호바트 길 에 위치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문의: (213)385-3304 ▶ 주소: 809S, Hobart Blvd, Los Angeles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비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소매·도매 민물장어 판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대한민국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부동의 1위 일월

이월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겨울은 책임지는 일월! **ilwoulusa.com**
방문하셔서 H10 code로 10%추가 D.C혜택을 보세요.

가성비 끝판왕! **탄소 스타일리쉬 워셔블 온열매트 (원반방)**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229 퀸 \$279 \$450 \$540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에 온수매트 싱글 \$325 더블 \$409 \$498 \$615	거실을 온돌처럼 따뜻하게 온돌마루 탄소 카페트 중형 \$350 대형 \$430 \$558 \$692	항균·위생 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179 더블 \$209 \$282 \$352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탭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09 더블 \$259 \$332 \$415	한국 최초 다목적 온열 담요 블랭킷 \$189 → \$159	가성비 최고의 70W 초절전형 온열매트 \$258 → \$165	편리한 쇼파용 미니 온열매트 \$148 → \$95

\$215 **\$265**
싱글 \$139 | 더블 \$169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장실3,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새 마루, 새 페인트, 리모델링한 부엌
 리모델링한 화장실, 펜스있는 뒷마당
 밝고 환한 타운하우스 **\$ 483,000**



특점 FAIRFAX 오피스

새 창문, 새 페인트,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콘도, 높은 천장,
 탁트인 구조, 넉넉한 주차장 **\$ 265,000**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방5, 화장실5.1/2, 5,908 SF, 5.38 Acres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 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특점 Woodbridge 싱글홈

2 Car Garage, Formal Model House 방5/화3½
 탁트인 강과 숲이 보이는 경치, Walkout
 Basement, 첫주인이 잘 관리한 넓고 밝은 환한집 **\$65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